연구보고서
JILES-2024-01

제주지역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방안 기초연구

책 임 연 구 : 고 미 영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경영기획부 부장)
손 태 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정책연구실 실장)
공 동 연 구 : 고 영 림 ((주)영림언어평생교육지원연구소 대표)
고 유 경 ((사)제주특별자치도 위드피플 대표이사)
이 지 윤 (제주국제대학교 조교수)
강 권 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정 인 경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경영기획부 주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Jeju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and Scholarship
제주여성가족연구원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발 간 사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23년 8월, ‘제주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평생교육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평생교육을 통해 모든 도민이 행복하고 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계선지능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공동으로 협력하여『제주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방안 기초연구』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사이에 속하는 이들로,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위치하여 교육·고용·사회적 참여 등 기존의 복지제도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 여러 분야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과 필요성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제주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당사자 및 가족, 관계자들을 위한 평생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보고서 발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공동 연구진 및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연구진, 그 밖에 조사에 협조해 주신 도내외 전문가분들과 연구 참여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계선지능인을 포함한 모든 도민이 평생교육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원장 **진 희 종**

연구요약

Ⅰ. 연구 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기초연구 차원에서 경계선지능인 관련 선행 자료를 검토하고,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적 지지체계인 당사자, 보호자, 교사, 현장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개별 또는 집단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 내용

- 경계선지능인 관련 선행연구, 법령, 조례, 정책, 사례 등을 통해 시사점 도출
- 경계선지능인 면접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지원 기본방향 및 과제 제안

○ 연구 방법

- 문헌분석, 면접조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

Ⅱ. 이론적 배경

1. 경계선지능인의 정의

□ 학문적·법제적 정의를 근거로 도출한 본 연구의 정의

○ 학문적·법제적 정의에서 경계선지능, 경계선 지적기능, 경계선급 지능, 경계선급 지적기능성, 느린 학습자, 경계선 지능인, 천천히 배우는 사람 등 다양한 용어로

쓰이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이 중 '경계선지능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함

○ 지방자치단체별 법령과 조례에서는 대부분 공통적으로 경계선지능인을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 71~84에 해당하며, 지적장애인의 범주에 들지 못해 특수교육이나 복지프로그램의 지원에서 제외된 대상이라고 지칭하고 있음

2. 경계선지능인의 특징

□ 경계선지능의 원인 및 유사 개념

○ **경계선지능 원인** : 주요 요인은 유전적 원인으로 보고, 부모의 낮은 지능은 자녀에게 유전 가능성이 높음

○ **경계선지능과 유사 개념** : 경계선지능은 지적 능력의 한계로 인한 낮은 인지 수행을 말하며, 심리정서적인 원인이나 지적장애, 학습장애,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등과 구분이 필요함

□ 경계선지능인의 일반적인 특성

○ **인지·학습적 특성** : 개인적인 특성에서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인지적 발달 및 학습 속도가 느리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언어적 특성** : 인지발달과 언어발달은 별개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초기 언어 발달 단계에서 수용 및 표현 어휘 습득, 음운발달, 구문발달의 언어발달 지연이 나타남

○ **심리·정서적 특성** : 다양하고 복잡한 정서적 표현 어려움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경험들은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해 적절한 대처가 어려움

○ **사회적 특성** : 경계선지능인은 인지, 언어 등 전반적 발달 지연으로 인한 또래와의 놀이 경험 부족 및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여 혼자놀이 경향이 있음

○ **운동기능 특성** : 전반적으로 신체 균형 수행력이 떨어지고 처리 속도가 느리다고 알려져 있으며, 특히 눈과 손의 협응을 요구하는 신체활동에서 어려움이 있음

□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 **학령전기** : 경계선지능 아동은 학령전기에 전반적으로 느린 발달과 또래와의 상호작용 및 단체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주요 특징임

○ **학령기** : 경계선지능으로 학업성취 수준은 또래와 비교 시 하위 8% 수준으로 특히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 영역에서 어려움을 나타냄

○ **청소년기** : 경계선지능인의 청소년기 주요 특성으로는 이 시기에 형성되어야 하는 긍정적 자아정체감이 학습된 무기력과 사회관계 부적응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

○ **성인기** : 학교 졸업 후 성인으로서 요구되는 사회생활을 수행해야 하지만 학령기, 청소년기 과정에서 사회적 교류 경험이 부족하고 자립 준비가 부족한 상황임

3. 경계선지능인의 선별 및 진단

□ 국내 장애 진단 체계

○ 장애 관련 진단은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되고, 학령전기와 학령기가 되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함

□ 특수교육대상자 선별 및 진단 체계

○ 현재 각 지역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역사회의 병·의원과 연계된 의료적 및 교육적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협력기관에 진단과 평가를 의뢰하고 검사기관에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을 시행하고 있음

□ 경계선지능인 선별 및 진단 체계

○ 경계선지능 아동의 선별 및 진단의 목적은 진단결과로 집단에서 낙인의 의미가 아니라, 개인 발달과정에 부정적인 요인을 발견하여 조기진단과 예방을 목적으로 함

Ⅲ. 국내·외 관련 정책 동향 및 운영사례

1. 국내·외 관련 정책 현황 및 사례

□ 국내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 현황 및 사례

○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음

○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용어의 사용과 경계선지능인 지원과 관련 제정된 법률은 없는 현실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를 근거로 법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음

○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른 종합계획(2023~2027)은 국가와 시도교육청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습자의 책무성을 강조하여 국가 교육 책임제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과제로 경계선지능 진단, 지원, 기반 계획을 포함하여 진단, 지원, 예방, 기반 내실화의 네 가지 분류를 통해 관련 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경계선지능인 관련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는 2020년 10월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 6월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설치함

□ 국외 관련 연구동향 및 사례

○ 국외에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 말과 1990년대 후반에 주로 이루어졌으며, 과거에는 지적장애 분류로 보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장애나 지체로 분류되지는 않음

○ 국외 경계선지능인 관련 지원 사례의 공통점은 경계선지능인의 조기 선별과 진단, 개별 맞춤형 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방안 모색의 필요성과 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 설립 혹은 기관 간의 협의체를 강조함

2.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정책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현재까지 제정된 경계선지능 관련 정책은 2023년 8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나, 현재 동법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임. 실태조사를 통한 서울시의 '밈' 센터와 같은 지원기관의 필요성과 대상자별 요구 근거의 기본계획 수립이 요구됨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3년 5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인 학생 지원조례」,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 등 법적 근거를 통해 경계선지능 학생 혹은 난독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느린 학습자 대상의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음

Ⅳ. 면접조사 결과

○ 본 연구의 면접조사는 경계선지능인의 특성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2024년 6월 동안 경계선지능인 당사자, 보호자, 현장 전문가, 교사 대상으로 집단조사를 우선 원칙으로 총 11회 진행하였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선별진단체계의 필요성 및 서비스 접근성 고려, 지원체계 마련 및 사회적 인식개선 등의 시사점을 도출함

〈표 Ⅳ-1〉 조사결과 근거의 주요 내용에 따른 정책 요구 요약

구분	보호자	당사자	교사	현장 전문가
최초 진단 경험	· 주변의 권유 · ADHD 등 별도의 치료 과정		· 학습 수행 과정에서 발견	· 상담 및 검사 과정

구분	보호자	당사자	교사	현장 전문가
어려움 경험	· 자녀의 관계 형성 및 유지 어려움 · 자녀의 감정적 행동으로 돌봄 어려움 · 자녀로 인해 가족이 받는 정신적 상처	· 학업 수행 어려움 · 교우관계 어려움 · 감정 관리 어려움	· 친구 관계 형성의 어려움 · 낮은 학업 성취도 · 학부모의 비협조적인 의사소통	· 경계선지능인 판정에 불명확성 (정상지능과 장애 판정지능 사이 끼인 집단)
어려움 경험	· 상담/치료 등 프로그램 이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 프로그램 다양성의 한계	· 학업 수행 어려움 · 교우관계 어려움 · 감정 관리 어려움	· 학부모의 자녀 치료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 불명확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진단 기준	· 생애주기별 학업 수행, 진로·취업의 어려움 · 일부 폭력 등 범죄와 연루되는 문제 발생
치료 및 서비스 등 이용 경험	· 언어, 인지, 사회성, 신체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 경험	· 학원이나 과외 등으로 학업 도움 · 상담 등을 통해 낮은 자존감, 우울감 등 부정적 감정 해결에 도움		
정책 수요	· 경제적 지원 · 정보 획득 경로 확대 · 사회적 인식 개선 · 지원 시스템 개선 · 경계선지능인 맞춤형 지원시설 설치	· 상담 프로그램 확대 ·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시설 ·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프로그램	· 사회적 인식 개선 · 조기 발견 및 지원 · 단계적 지원 프로세스 구축 · 전문기관 연계의 학교·시설 간 지원 체계 구축	· 진단체계 개선 · 단계적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전문기관 연계로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 서비스 지원

V. 정책 제언

1. 경계선지능인 지원정책 기본방향

○ 제주지역의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지원정책 기본방향은 첫째, 선별 진단체계 마련 및 서비스 접근성 고려, 둘째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체계 마련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등으로 설정함

2. 경계선지능인 지원방안

2-1. 경계선지능인 맞춤형 지원을 위한 선별 및 진단체계 마련

□ 경계선지능인의 다양한 양상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진단 도구 개발

○ 경계선지능인의 명확한 기준과 다양한 양상을 고려한 진단 도구 개발이 필요함. 특히 선별검사 도구는 경계선지능인 특징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지능(IQ) 이외에 대상자의 행동, 대인관계, 언어 및 의사소통, 행동 및 심리·정서 등을 포함해야 함

□ 경계선지능인 맞춤형 진단을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및 보급

○ 부모, 교사, 관계자 등 대상으로 경계선지능인의 특징에 대해 빠르게 인식(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배포할 필요가 있음

2-2.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차원의 지원을 위한 거점 센터 및 지원체계 마련

○ 전담기관의 설립은 필요하나 하나의 거점 센터가 모든 사업을 할 수도, 모든 대상자와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평생교육, 사회복지 등을 제공하는 기존의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정책 욕구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필요

○ 생애주기별 조사대상을 표집하고 정책 욕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양적 실태조사를 통해 관계형성의 어려움, 일상생활의 어려움, 교우관계의 어려움 등의 하위주제에 대한 분석과 프로그램 욕구 등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요구됨

2-3.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 경계선지능인 특성을 고려한 일관된 지원으로 사회 통합 및 자립 가능성 향상

○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경계선지능인을 올바르게 이해한 전문적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일관된 지원을 통해 예측 가능한 문제 해결 및 사회 통합과 자립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함

□ 경계선지능인 개별 맞춤형 지속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경계선지능인의 개별적 필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개별화된 계획(Individualized Support Plan, ISP)을 수립하고, 생애주기별로 평가와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및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임

2-4.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홍보 강화

□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법적 보호 강화

○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정보 제공과 인식 제고와 이들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함

□ 경계선지능인 관련 통합적인 정보 시스템 구축

○ 제주지역 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다른 형태의 기관이라도) 등의 관련 기관 서비스 지원체계는 생애 전반에 걸쳐 연속적이고 일관된 지원을 제공해야 하므로 교육, 고용, 복지, 건강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통합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통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목 차

Ⅰ. 연구 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2. 연구내용 및 방법 ····· 4

Ⅱ. 이론적 배경

1. 경계선지능인의 정의 ····· 7
   1-1. 학문적 정의 ····· 8
   1-2. 법제적 정의 ····· 9
   1-3. 본 연구의 정의 ····· 11
2. 경계선지능인의 특성 ····· 12
   2-1. 경계선지능의 원인 및 유사 개념 ····· 12
   2-2. 경계선지능인의 일반적인 특성 ····· 14
   2-3.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 17
3. 경계선지능인의 선별 및 진단 ····· 21
   3-1. 국내 장애 진단 체계 ····· 21
   3-2. 특수교육대상자 선별 및 진단 체계 ····· 23
   3-3. 경계선지능인 선별 및 진단 체계 ····· 23

Ⅲ. 국내·외 관련 정책 동향 및 운영사례

1. 국내·외 관련 정책 현황 및 사례 ····· 26
   1-1. 국내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 현황 ····· 26
   1-2. 국외 관련 연구동향 및 사례 ····· 33
2.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정책 현황 ····· 35
   2-1. 제주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 ····· 35
   2-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원 정책 ····· 36
3. 시사점 ····· 39

Ⅳ. 면접조사 결과

1. 조사개요 ····· 41
1-1. 조사대상 ····· 41
1-2. 조사내용 ····· 44
2. 면접조사 결과 ····· 45
2-1. 경계선지능인 보호자 ····· 45
2-2. 경계선지능인 당사자 ····· 55
2-3. 교사 ····· 60
2-4. 현장 전문가 ····· 68
3. 요약 및 시사점 ····· 74

Ⅴ. 정책 제언

1. 경계선지능인 지원정책 기본방향 ····· 76
2. 경계선지능인 지원방안 ····· 77
2-1. 경계선지능인 맞춤형 정책 지원을 위한 선별 및 진단체계 마련 ····· 77
2-2.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 79
2-3.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 80
2-4.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홍보 강화 ····· 82

참고문헌 ····· 85
ABSTRACT ····· 89

표 목차

〈표 Ⅱ-1〉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에 대한 정의 … 10
〈표 Ⅱ-2〉 느린 학습자(경계선지능) 선별검사 판정기준 …… 25
〈표 Ⅱ-3〉 느린 학습자(경계선지능) 선별검사 항목별 문항 …… 25

〈표 Ⅲ-1〉 지방자치단체별 경계선지능 관련 조례 제·개정 현황 …… 26
〈표 Ⅲ-2〉 지방지차단체별 경계선지능 관련 느린학습자 조례 제·개정 현황 …· 29
〈표 Ⅲ-3〉「초·중등교육법」제28조 …… 30
〈표 Ⅲ-4〉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 …… 31
〈표 Ⅲ-5〉 제주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 관련 조례 등 …… 36
〈표 Ⅲ-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관련 조례 …… 37
〈표 Ⅲ-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관련 지원 사업 …… 39

〈표 Ⅳ-1〉 경계선지능인 보호자 면접조사 참여자 …… 42
〈표 Ⅳ-2〉 경계선지능인 당사자 면접조사 참여자 …… 42
〈표 Ⅳ-3〉 교사 면접조사 참여자 …… 43
〈표 Ⅳ-4〉 현장 전문가 면접조사 참여자 …… 43
〈표 Ⅳ-5〉 면접조사 질문 내용 …… 44
〈표 Ⅳ-6〉 조사결과 근거의 주요 내용 및 요구에 따른 시사점 도출 …… 75

그림 목차

〈그림 Ⅰ-1〉 지능정규분포곡선으로 예측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계선지능 인구 ····· 2
〈그림 Ⅰ-2〉 연구 수행 절차 ····· 6

〈그림 Ⅱ-1〉 국내 장애인 등록 절차 ····· 22

〈그림 Ⅲ-1〉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체계도 ····· 32
〈그림 Ⅲ-2〉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추진사업 ····· 33
〈그림 Ⅲ-3〉 제주특별자치도 2024년 기초학력 추진과제 및 지원 절차 ····· 38

I. 연구 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계선지능인[1)]

○ 경계선지능(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은 표준화된 지능검사 기준 지능지수 70~79점이거나 DSM-Ⅳ(미국 정신의학회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4판) 기준 지능지수 71~84점(표준편차 −1과 −2사이)에 해당함. 우리나라 전 인구의 13.59% 정도가 경계선지능 범주에 속함(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2024.4.2. 인출). 즉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 능력을 가진 자(박진우, 2023)로, 학문적·법제적 용어에서 경계선지능인, 경계선 지적기능, 경계선 지적지능, 경계선급 지능, 경계선급 지적기능성, 느린 학습자, 경계선지능, 천천히 배우는 사람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경계선지능인'이라는 용어로 사용함

○ '경계선지능인'은 단어 그대로 지적으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의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그동안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Fujiura(2003) 연구에서는 경계선지능 집단이 지적장애 집단과 동일성이 있는 집단으로 나타나 학습장애와 마찬가지로 별도 판별을 통해 적절한 교육 및 사회·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함(변관석·신진숙, 2017에서 재인용). 한편으론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학업능력, 정서적 어려움,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지칭함(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2024.4.2. 인출)

---

1)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에서 제시된 '경계선지능인'으로 기술하고, 지능지수는 현재 선행연구 등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DSM-Ⅳ(미국 정신의학회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편람) 기준에 맞춰 71~84점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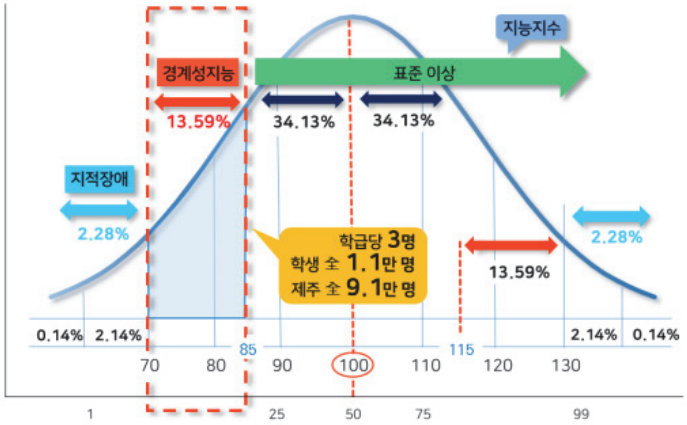
○ 이러한 이유로 관련 정책 사업을 계획할 때 ‘경계선지능인’, ‘느린 학습자’, ‘저성취 아동’, ‘학습장애아’ 등의 정책대상자로 인정하여 별도의 지원 영역이 필요한지, 발달장애 범주로 편입하여 장애인복지영역에서 이들을 지원해야 하는지(박광옥 외, 2022) 등 명확한 기준은 없이 상반된 주장만 있을 뿐임

○ 문제는 경계선지능인이 학창시설 학교 부적응은 물론 졸업한 이후에도 법적으로 장애인 또는 특수교육대상자로 등록되지 못해 교육훈련 지원이나 취업을 위한 복지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다는 것임(변관석·신진숙, 2017). 또한 학대, 범죄 등에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연루되어 사회 주류 집단에서 배제되거나 사회문제 대상으로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임(강옥려, 2016; 박광옥 외, 2022에서 재인용)

○ 경계선지능을 가진 학생들은 한 반에 3명꼴임(강옥려, 2016). 국회입법조사처가 추정하는 우리나라 경계선지능인의 규모는 2023년 12월 기준 약 565만 명~667만 명 존재하고 있다고 예측되고 있음(박진우, 2023)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계선지능 인구는 지능의 정규분포(가우스분포) 기준으로 예측하면 2024년 2월 말 현재 기준, 제주도 전체 인구의 약 9만 1천명(673,665명×13.59%)으로 지적 장애인(673,665명×2.28%, 약 1만 5천 명)의 약 6배이고, 제주도 전체 학생인구의 약 1만 1천명(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 제외 전체 학생 수 82,683명×13.59%)으로 추정됨

〈그림 Ⅰ-1〉 지능정규분포곡선으로 예측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계선지능 인구



출처: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책임자가 재구성

○ 이러한 상황에서도 현재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하게 합의된 선별 기준이나 지원 정책은 부재함. 이로 인해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은 학창시절의 학습과 관계 등 다양하게 겪는 어려움부터 성인기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 기회까지 배제되고 있어 정책적 지원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제주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근거로 명확한 대상 기준 마련 필요

○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12월 국회에서 최초로 '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국회의원 조정식·EBS교육방송·교육부·경기도교육청, 2014) 이후, 2016년 이른바 경계선지능 학생 등의 지원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됨(2016.2.3. 일부개정·시행)

- 내용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하는 학생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태조사, 정책에 필요한 예산 지원 등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권리 보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임(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법령, 2024.3.28.인출)

○ 특히 2020년 이후 경계선지능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경계선지능인 혹은 느린 학습자 '지원', 경계선지능인 혹은 느린 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등으로 조례명 표기가 다르고, 이에 따라 지원 대상 기준 역시 명확하지 않음

- 2024년 4월 2일 현재, 전체 85개 중 63개 조례(53개 지자체와 10개 교육청)에서는 '경계선지능인'으로 표기하였지만, 22개 지자체에서는 '느린 학습자'로 명시함. 대상 기준에 대해서는 원주시, 춘천시 등 5개 지자체에서 '18세 미만', '24세 이하' 등으로 연령 기준을 제시했을 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지원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다양한 용어 사용과 대상자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8월 7일,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 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함.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상자에 대한 개념 정의와 특성에 관한 기초 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의 선별 기준과 그에 따른 조례 개정 등 검토가 요구됨

□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경계선지능인 관련 기초 연구 필요

○ 현재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프로그램 대부분은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에게 집중되어 있는 편임(최승숙 외, 2022). 전 생애 차원의 효과적인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각 시기별 발달과업에 따른 경험을 바탕으로 욕구를 파악하고, 경계선지능 대상자의 전 생애 주기를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 특히 경계선지능인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생애주기에 따라 가정과 학교, 학교 밖, 지역사회와 같이 개인을 둘러싼 각각의 환경적 요인과 상호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경계선지능인 당사자와 보호자, 전문가, 교사 등을 통한 총체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초 연구 차원에서 경계선지능인 관련 선행 자료를 검토하고, 당사자 중심의 지원 정책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 경계선지능인을 둘러싼 사회적 지지체계인 당사자, 보호자, 교사, 현장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개별 또는 집단 면접방식으로 욕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2-1. 연구 내용

□ 경계선지능인 선행연구 검토

○ 경계선지능에 대한 문헌 검토를 토대로 개념 정의, 원인과 유사 개념 및 일반적 특징, 경계선지능인의 선별 및 진단체계 분석을 통해 선별과 진단의 중요성 도출

□ 경계선지능인 관련 법규 및 주요 정책과 사례 분석

○ 경계선지능에 대한 법령, 조례, 주요 정책 및 국내외 사례 검토를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경계선지능인 면접조사 분석

○ 경계선지능인의 특성과 정책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 당사자와 사회적 지지체계인 보호자, 교사,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개별 및 집단 면접방식으로 욕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을 도출함

□ 제주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 제안

○ 문헌, 법령, 국내외 사례 검토 및 경계선지능인 관련 면접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 기본방향 및 과제를 제안함

2-2. 연구 방법

□ 문헌 분석

○ 경계선지능에 대한 문헌 및 정책, 사례분석을 통해 경계선지능에 대한 정의, 유사개념 및 일반적 특성, 관련 지원 정책 등 전반적인 현황 파악

○ 문헌과 정책,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면접조사 질문지 구성 및 연구방향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면접조사

○ 생애주기별 경계선지능인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서비스 이용 경험, 정책 수요 등 대상자별 질문내용을 구성하고 조사를 진행함

○ 면접조사는 2024년 6월 동안 경계선지능인 당사자를 포함하여 사회적 지지체계인 보호자, 교사, 현장 전문가 대상 개별 혹은 집단 면접방식으로 총 11회 진행함

○ 자료 수집 및 분석은 경계선지능인 당사자의 의사소통과 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면접 대상자를 동질적 이해관계자로 의도표집하고 개별 및 집단 면접조사 녹취록을 그룹별 주요 질문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분석함

□ 전문가 자문회의

○ 경계선지능인 관련 전문 지원 기관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서울

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밈'센터 관계자 및 학교 현장,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경계선지능인 판정 결과가 주는 영향, 생애주기별 특징과 사례 및 필요한 지원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본 연구의 내용 분석, 제언에 반영함

□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간담회

○ 연구에서 수행한 사례 및 면접조사 결과분석을 토대로 제안한 지원 기본방향과 과제를 공유하고 경계선지능인 관련 행정부서 및 관계기관 등과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 모색의 논의의 장을 마련함

2-3. 추진 절차

○ 본 연구수행에 따른 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음

〈그림 Ⅰ-2〉 연구 수행 절차

1단계	연구 설계 및 연구진 회의	➪	• 연구 설계에 대한 공동수행기관 연구진 및 행정 등 관계자 의견수렴 • 연구 추진 과정에서 공동수행기관 연구진 간 수시 연구진 회의 추진
2단계	문헌 연구 및 조사 설계	➪	• 경계선지능 관련 선행연구 및 법령, 정책 자료, 사례 등 문헌 검토 • 제주지역 경계선지능인 욕구 파악을 위한 조사 설계 및 질문지 구성
3단계	면접조사	➪	• 경계선지능인을 둘러싼 사회적 지지체계로서 당사자, 보호자, 교사, 현장 전문가 대상으로 개별 또는 집단 면접조사 실시
4단계	자문 및 의견수렴	➪	• 정책지원 기본방향 및 현실적으로 가능한 과제 도출을 위한 전문가 자문 • 연구결과 공유 및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 모색의 간담회 개최
5단계	정책 지원방향 및 과제 제안	➪	• 제주지역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방향 및 정책 과제 도출

Ⅱ. 이론적 배경

1. 경계선지능인의 정의

○ 현재 경계선지능에 대한 공식적인 진단은 없음. 경계성 지적 기능(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BIF)이라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영역으로 폭넓게 살펴봐야 함. 이러한 이유로 특정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독립적 진단이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경계선지능을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 대한 지적 발달 장애에 따라 나타나는 발달의 제한성이 고려되어야 함

○ 지능을 평가하는 검사의 진단 결과로 나타나는 지능 지수(IQ)는 지능을 나타내는 점수를 수치화하고 이 점수가 인지 능력을 집단적으로 표현한 값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수치화된 점수는 표준화를 거친 지능검사도구의 결과이기에 검사 결과의 타당도나 신뢰도를 감안하더라도 검사 결과로만 현재 개인의 지능 관련한 상태를 확실하게 진단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임

○ 일반적으로 지능검사는 검사를 통해 지적 기능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임상 도구로 그 의미가 있음. 그러나 검사 결과에 따라 지능점수가 낮다고 해서 반드시 지적장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낮은 지적수준, IQ 점수는 실제 사례와 경험 등의 임상적 결과들과 종합적으로 비교했을 때 신뢰성 있는 결과로 평가될 수 있음

○ 경계선지능에 대한 기준은 대체적으로 공식 진단 결과 IQ점수가 70에서 85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이와 함께 임상적으로 다양한 발달 지연과 기능적 결함 등이 나타나는 경우를 '경계선지능인'이라고 볼 수 있음

○ 현재 공식적인 진단이 부재한 상황에서 경계선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제도적 지원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경계선지능에 대한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따라서 경계선지능에 대한 정의가 기술된 문헌을 통하여 경계선지능에 대한 학문적, 법제적 정의를 살펴보고자 함

1-1. 학문적 정의

○ 미국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DSM-Ⅳ-TR)의 기준에 따라 경계선지능인은 표준화된 지능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평균에서 -1 표준편차와 -2 표준편차 사이의 지능점수에 해당하는 IQ로 수치적으로 71 이상 84 이하에 속하는 집단을 의미함(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 DSM-Ⅳ에서는 지능점수 70 이하를 지적장애로, 지능점수 85 이상을 정상으로 규정하고(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그 중간에 해당하는 경우를 경계선지능으로 보지만 DSM-Ⅴ에서는 지능점수의 범주가 사라짐(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3)

○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기준은 해외 문헌에서도 '대략(roughly)' 지능 점수 70~85 사이에 분포한다고 설명함(Wieland & Zitman, 2016)

○ 이에 현재 대부분 경계선지능에 대한 기준은 DSM-Ⅳ에서 표기된 지능점수를 기준으로 경계선지능인을 정의하고 있음

○ 교육부 공식 블로그(2023)에서는 지능지수 이외에도 심리적 상태나 환경조건에 의해 '평균 하'에 해당하는 IQ 80~85 정도로 낮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경계선 지능의 수준은 IQ 70~79 정도로 본다고 설명함

○ 국내와 국외 문헌에서 경계선지능인의 규모는 전체 인구의 13.59%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지능검사가 통계적으로 정규분포곡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정규분포곡선의 -1 표준편차와 -2 표준편차 사이에 해당하는 비율을 추정한 결과임(강옥려, 2016; Wieland & Zitman, 2016)

○ 우리나라 '2022년 장애판정기준'에 따르면 지적장애 판정기준에서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로 정함

○ 지적장애 정도 기준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 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보건복

지부, 2022)

○ 앞서 우리나라 '2022년 장애판정기준'에서 지적장애에 속하지 않지만 삶의 여러 영역에서 개인별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존재함

○ 경계선지능의 진단 및 정의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하여 대안적으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왔으므로 각 영역에서 정의하는 경계선지능의 개념을 종합하여 대안적 정의를 제시함(김동일 외, 2021)

○ 여러 기준들에 근거하여 종합한 대안적 정의에 따르면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 71~84에 속하며, 지적 능력의 제한으로 인해서 학업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만,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제공된다면 성공적으로 사회 적응할 수 있는 이들로 파악'되고 있음. 따라서 경계선지능을 진단할 때에는 지능점수와 더불어 학업적 어려움과 사회 적응의 어려움 또한 진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지원 필요한 영역과 그 정도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1-2. 법제적 정의

○ 경계선지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이므로 최근 경계선지능에 대한 법안과 정책들이 제안되고 있음

○ 대표적으로 2022년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 및 적절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통한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해당 법에서 정의하는 학생은 성격장애나 지적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으로 학업 중단 학생 또는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을 의미함

○ 그러나 '지적 기능의 저하',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한계임

○ 최근에는 활발하게 여러 지방자체단체에서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가 제정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시한 조례에 명시된 경계선지능의 정의는 〈표 Ⅱ-1〉과 같음

〈표 Ⅱ-1〉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에 대한 정의

구분	조례명	제정일	경계선지능에 대한 정의
1	경기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4. 21.	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 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20. 10. 5.	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 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인천광역시 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2022. 4. 21. 시행	“경계선지능”이란 지적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경계에 있는 인지 능력을 말한다.
4	경상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23. 1. 2.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 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함
5	대구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23. 10. 4.	경계선지능으로 인하여 학습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는 학생을 말함
6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4. 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 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함

구분	조례명	제정일	경계선지능에 대한 정의
7	부산광역시교육청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2. 22.	경계선지능 및 난독증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을 말함.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을 제외함
8	제주특별자치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23. 8. 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 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함
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2023. 5. 10.	경계선지능으로 학생생활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함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2024. 4. 2. 기준 인출.

1-3. 본 연구의 정의

○ 학문적·법제적 정의에서 경계선지능, 경계선 지적기능, 경계선급 지능, 경계선급 지적기능성, 느린 학습자, 경계선 지능인, 천천히 배우는 사람 등 다양한 용어로 쓰이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이 중 '경계선지능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함

○ 앞서 살펴본 지방자치단체별 법령과 조례는 대부분 공통적으로 '경계선지능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이때 경계선지능인은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 71~84에 해당하며, 지적장애인의 범주에 들지 못해 특수교육이나 복지프로그램의 지원에서 제외된 대상을 지칭하고 있음

○ '경계선지능인' 관련 조례의 목적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이들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적 마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 있음(국가법령정보센터, 2023)

○ 특히 경계선지능인 관련 평생교육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학교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학력 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교육활동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 따라서 전 연령 혹은 생애주기별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한 시점임

2. 경계선지능인의 특성

2-1. 경계선지능의 원인 및 유사 개념

□ 경계선지능 원인

○ 경계선지능을 초래하는 원인에 대해서 다양한 요인이 선천적 그리고 후천적 환경의 영향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결과로 보고 있음

○ 경계선지능의 후천적인 주요한 원인으로는 개인의 건강 및 신체적 원인(질병), 사회경제적 어려움, 사회·문화적 경험 박탈, 가정환경(가족 지원, 가족 구성원의 인지적 능력, 상호작용 등), 교육 및 학교 환경(적절한 교육의 부재), 심리·정서적 요인 등이 있음

○ 가정환경에서 사회경제적 위치는 가족들의 신체적 성장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며, 학습의 기회 부족과 사회·문화적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임

○ 경계선지능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은 유전적 원인으로 보고, 부모의 낮은 지능은 자녀에게 유전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유전적인 소인과 함께 환경적으로 가족 구성원의 지적 능력이 낮은 경우, 특히 지적 능력이 낮은 부모는 적절한 시기에 자녀들의 성장과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그 외에도 제한된 지적 기능으로 인한 잦은 실패의 경험과 학습된 무기력은 낮은 자존감과 심리·정서적으로 인지적 발달에 부정적인 작용을 함(김동일, 2023)

□ 경계선지능과 유사 개념

○ 경계선지능은 지적 능력의 한계로 인한 낮은 인지 수행을 말하며, 심리·정서적인 원인이나 지적장애, 학습장애,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등과 구분이 필요함

○ 경계선지능과 혼동되는 학령기의 낮은 인지 수행을 보이는 학습장애의 경우, DSM-V에서 특정 학습장애로 명칭을 정하여 ‘정상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지만 학업기술을 사용하고 학습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는 상태로, 어려움이 있는 영역에 대한

중재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읽기, 쓰기, 수학 영역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 특정 학습장애로 진단할 수 있다'고 함

○ 경계선지능과 특정 학습장애의 차이는 지적 능력이 정상 수준에서 어디에 속하는지의 제한 여부로 구분될 수 있음. 특정 학습장애는 진단명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그 기준이 학습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경계선지능은 학습 뿐만 아니라, 사회 적응 등의 전반적인 인지력, 이해력, 사고력을 포함한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음

○ 특정 학습장애의 특징은 문해 능력이나 수학 연산에서 어려움으로 학령기에 학습되어지는 영역에서의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 들은 내용을 기억하거나 주어진 정보를 통합, 추론, 유추하는 등 전반적인 이해력에서의 어려움은 없음. 반면, 경계선지능의 경우에는 제한된 인지적 기능으로 인하여 언어, 기억력, 지각, 집중, 처리 속도 등의 정보 처리 과정에서 한계를 가짐(김동일, 2023)

○ 경계선지능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도 구분이 필요함.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는 아동기에 나타나는 행동장애의 하나로, 주의집중력 부족, 충동적 행동, 과잉활동성을 주요 특징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인지활동 및 학습 관련 문제,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활동에서 적응적 문제, 심리·정서적 문제 등의 어려움을 가지게 됨(김동일, 2023)

○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는 DSM-V 기준으로 주의산만 증상과 과잉행동 증상 각각에서 6개 이상의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 진단할 수 있음. 또한 앞서 설명한 증상이 12세 이전에 나타나며 심각한 부주의나 과잉행동-충동성이 학교, 가정 중 두 가지 이상의 장면에서 나타날 때, 학업과 사회적 기능을 저하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 진단하고 있음

○ 경계선지능의 경우에도 주의가 산만하고 주의집중력에 어려움이 있다는 측면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와 유사한 증상을 보일 수 있으나, 증상의 원인이 경계선지능은 지능 및 인지적 결함이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는 지능이 낮은 것이 주원인이 아니라는 점임.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의 원인으로는 뇌 기질적 문제와 유전적 측면에서 원인을 찾고 있음(박찬선, 장세희, 2018)

○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는 기질적인 문제와 부적절한 교육 및 양육환경으로 인한 환경적 요인의 영향으로 보기도 함. 단, 이러한 경우에도 경계선지능과 같이 인지적인 결함, 낮은 지적능력이 주요 원인이 아닌 주의력 부족과 산만함이 특징이고, 경계선지능은 낮은 지능으로 인한 주의력 부족과 산만함이 나타난다는 점이 다름(박찬선, 장세희, 2018)

2-2. 경계선지능인의 일반적인 특성

□ 인지·학습적 특성

○ 경계선지능에 속하는 사람들은 각각의 개인적인 특성에서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인지적 발달 및 학습 속도가 느리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전반적인 발달 측면에서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인 발달 순서를 보이지만 개인 특성에 따른 차이와 보유 인지적 지능의 수준이 낮을수록 일반적인 발달 속도보다 느린 발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인지적 측면에서 발달은 지적 능력을 발휘하여 학습과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기존의 지식과 비교 및 통합하여 일반화, 범주화, 추론 과정 등을 거치는데 이러한 인지 영역 수행에 어려움을 보임

○ 기존의 지식들과 새로운 지식들을 통합, 일반화, 추론하는 능력의 제한으로 상황에 적절한 인지적 전략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상위 인지 능력이 필요한 추상적이고 복합적인 과제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 인지적 학습에서 과제 수행 시 선택적 주의집중, 주의집중 유지 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환경 자극에 대한 조절 억제가 요구되는 복잡하고 복합적인 과제 수행에 어려움을 보임. 이러한 이유로 지식을 논리적 및 체계적으로 조직화하여 학습을 통해 습득된 내용의 관계를 연결하고 이해하여 체계적으로 저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주의집중력의 어려움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할 때에도 집중하여 이야기를 듣고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주제를 유지하여 대화를 주고받는 것에 어려움을 겪음. 또한 적절한 주제 전환이라는 의사소통과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러운 정보의 습득에도 어려움을 보임(강옥려, 2016)

○ 주의력 결함은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과정인 작업기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효과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이전 정보와 비교하여 처리하는 기억 처리 과정에서 제한된 작업기억 수행으로 인하여 성공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김주영, 2018)

○ 인지적 제한점은 학습 시에 청각적으로 제시되는 설명이나 복잡한 지시사항에서 처리와 이해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적 과제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상위 인지 능력인 추상적 사고능력의 부족으로 단순처리 과제는 어려움을 보이지 않으나 추상적이고 복잡한 추론능력이 요구되는 과제에서는 맥락적인 상황과 배경지식 등 다양한 정보들을 통합하는 체계적인 사고에 한계를 보임. 즉 유용한 학습전략을 계획하고 적용하는 것을 어려워 함

○ 상위 인지 능력에서는 문제해결 능력의 부족으로 어렵거나 익숙하지 않은 문제에 부딪치게 되면 해결 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고 결과를 예측하여 상황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인지 능력과 주의력 결함은 전반적인 학습 기능과 관련하여 읽기, 쓰기 수학 등 기초학업능력이 낮은 수준의 성취로 나타나고, 학업 성취 문제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령기 경계선지능인의 학업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

□ 언어적 특성

○ 인지발달과 언어발달은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경계선지능으로 인하여 초기 언어발달 단계에서 수용 및 표현 어휘 습득, 음운발달, 구문발달의 언어발달지연이 나타날 수 있음

○ 초기 언어발달 지연이 지속되면 언어발달 지체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의사소통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음

○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습득되는 어휘량도 증가하지만, 경계선지능인은 유의어, 한자어와 외래어 등 다양한 어휘들을 습득하고 관용어, 속담 등과 같은 어휘 유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경계선지능으로 언어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대화 시에 상황과 맥락에 따른 이해 능력과 적절한 표현 능력에 어려움 보일 수 있음

○ 언어는 구어적 측면과 문어적 측면으로 보았을 때 구어적 이해와 표현 발달 제한성은 문어의 읽고 쓰는 측면에서도 제한됨.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상황에 적절하지 않는 말을 하거나 적절한 표현에 어려움 있음(강옥려, 2016)

□ 심리·정서적 특성

○ 심리·정서적 측면에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일반인과 차이가 없다는 연구와 문제가 있다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있음(Gabriele et al., 1998; Reddy, 2006)

○ 초기 발달시기에 지적능력 제한성으로 인한 인지 발달의 저하는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주어 정서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경계선지능인의 경우 다양하고 복잡한 정서적 표현 어려움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경험들은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해 스스로 적절한 대처가 어려워 과도한 걱정과 통제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음

○ 반복적으로 겪게 되는 좌절과 실패의 경험은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 자아상, 무기력과 우울감으로 나타나기도 함(박현숙, 2018)

○ 심리·정서적 불안정성은 본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의 표현에도 어려움을 가지므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보일 수 있음(박현숙, 2016)

○ 다른 사람과의 관계 문제는 발달시기에 또래에게 거부당한 경험, 부모 및 어른들로부터 받게 되는 낮은 기대감과 부정적인 평가로 심리·정서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심화될 수 있음

□ 사회적 특성

○ 경계선지능인은 인지, 언어 등 전반적 발달지연으로 인한 또래와의 놀이 경험 부족 및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여 혼자놀이 혹은 어린 집단과 어울리는 경향이 있음

○ 의사소통 상황에서 타인의 말이나 행동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타인과 갈등이 생겼을 때 적절한 대처 능력과 조망수용 능력이 부족하여 사회적 상황이나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해 적절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Chanhan, 2011).

○ 타인과의 관계 맺기와 유지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사회적 교류 경험이 많이 없고, 연령에 적합한 자기관련 역량이 부족한 편임(주은미, 최승숙, 2020; Peltopuro et al. 2014)
○ 학령기 사회관계에서의 어려움은 이후 성인이 되어서도 가정, 직장, 이성, 친구 등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학령기에는 낮은 학업성취로 인하여 진학이나 직업교육이 미흡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직업 선택의 어려움과 제한점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독립이 어려울 수 있음

□ 운동기능 특성
○ 경계선지능인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신체 균형 수행력이 떨어지고 처리 속도가 느리다고 알려져 있으며, 특히 눈과 손의 협응을 요구하는 신체활동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엄경남 외, 2019)
○ 일상생활에서 정교한 동작이 필요한 기술(실 꿰기, 용량에 맞추어 음료 따르기 등)이나 보다 세밀한 협응이 필요한 운동기술 습득과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2-3.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 학령전기
○ 경계선지능을 가진 아동은 주위에서 발달이 늦은 아이, 학습을 어려워하고 잘 못하는 아이로 장애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정상이라 보기에는 애매한 범주에 속하는 아동으로 이에 대한 분명한 평가와 중재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이금진, 2011; 유경, 정은희, 김락형, 2007; Shaw, 2008)
○ 인지, 언어, 운동 등 전반적인 발달이 느리고,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관계자가 아동의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적절한 양육과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Fenning, 2007)
○ 경계선지능 아동은 학령전기에 전반적으로 느린 발달과 또래와의 상호작용 및 단체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주요 특성임
○ 다른 사람과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또래와의 상호작용과 놀이활동에서 상황 파악이나 놀이 규칙 이해가 어려워 놀이를 방해하고 참여를 거부당하는 등의

어려움을 보임

○ 또한 교육 시에 교사의 설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해력이 낮아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다른 아동의 활동을 방해하는 편임(이새별, 강옥려, 2020)

□ 학령기

○ 경계선지능으로 학업성취 수준은 또래와 비교 시 하위 8% 수준으로 특히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 영역에서 어려움을 나타내기도 하고, 연산, 정보처리, 독해능력 등 사고력을 요하는 영역에서 더 어려움을 보인다는 연구결과(정희정, 이재연, 2008; 이금진, 2011)들이 있음

○ 학령전기 언어능력의 제한은 학령기에 읽기 및 쓰기 어려움으로 나타남(Bonifacci & Snowling, 2008). 즉, 경계선지능인의 학령기 주요 특성은 전반적으로 낮은 기초학습 능력을 보임

○ 언어적 측면은 지속적으로 일반아동과 차이가 커지는 반면, 비언어적 기능은 연령이 높아지면서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구어 및 문어의 언어 능력은 저학년보다 고학년에서 더 낮게 평가되고 있음(이금진, 2011; 정희정, 이재연, 2008)

○ 학령기 아동의 읽기, 쓰기 어려움은 전반적인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학업실패의 경험을 주고, 이때 학업적 실패 경험은 또래관계에서 낮은 자존감, 열등감, 소외감, 좌절감으로 이어지게 됨(김춘경, 1998)

○ 학교에서 학업적 실패와 함께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이해와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심리·사회적으로 더욱 위축되는 경향이 있음

○ 학령기 학습에 대한 어려움은 경계선지능 아동의 특성으로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단계에서 근면 대 열등감이라는 단계에서 문제를 보임

○ 학령기는 사회화에 필요한 인지적,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실패의 경험은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열등감으로 이어지게 됨(Erikson, 1964)

○ 학교부적응 아동으로 분류되는 이들은 다른 아동과 비교하여 정서 행동상의 문제로 나타날 확률이 높음(Deb and Bright, 2001)

○ 이러한 이유로 상황에 따라서는 학교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행동과 정서상의 부적응을 나타내는 학생들에 대한 예방적, 직접적 개입 프로그램이 필요하기도 함(김상균 외, 1997; 이소래, 2003; 이금진, 2011; 전미진, 2003)

○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시기에 성공적인 경험의 부재는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한 부정적인 경험으로 심리·정서적 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됨. 즉 경계선지능인은 관계 맺기를 어려워하는 또래보다는 연령이 어린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함

○ 동시에 언어발달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과의 대화 속에 숨어있는 의미, 억양, 쉼, 강세 등의 초분절적 표현에 따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됨(강옥려, 2016)

○ 상황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여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음(김동일 외, 2022)

○ 따라서 경계선지능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성취도는 낮아지고, 학교생활 적응 능력의 부족으로 학습된 무기력을 경험하여 학업과제에 대한 자신감 결여와 새로운 상황에 자신감이 부족하여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음

□ 청소년기

○ 자아 정체감 대 역할 혼미 단계인 청소년기에는 사회적 요구와 생물학적 성숙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임(Erikson, 1968)

○ 생물학적으로 볼 때 청소년기는 신체적 성장과 급격한 성적 성숙으로 여러 가지 정신분석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때로 경계선지능의 청소년이 사회·환경적 관계 속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유발될 수 있음

○ 경계선지능인의 청소년기 주된 특성으로는 이 시기에 형성되어야 하는 긍정적 자아정체감이 학습된 무기력과 사회관계 부적응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

○ 경계선지능을 가진 청소년은 자신의 감정, 생각을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고 사회적·문화적으로 요구하는 다양한 당면 과제들에 대한 실패의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는 특징을 보임

○ 학교과정에서 학습과 대인관계 능력은 향후 학교과정 이후 사회생활에서도 성공적인 적응으로 연결되므로 이에 대한 중재가 필요한 시기임(정희정, 이재연, 2008)

○ 특히, 경계선지능을 가진 청소년 중 취약계층에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학습적 개입과 상위 인지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제공, 신체와 정신건강상의 측면에서 개입이 필요함(이금진, 2011)

○ 상위 인지 능력인 추상적인 개념 이해의 어려움, 지식조직의 문제, 일반화의 어려움, 조망수용능력 등의 제한성으로 사회적 정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사회성과 정서 및 행동에서의 어려움을 나타냄(강옥려, 2016)

○ 청소년기 학교생활에서 낮은 학업 성취로 인하여 점차 학업과는 멀어지고, 적절한 의사소통 실패의 경험과 또래 관계 유지가 어려워 학교 폭력에 노출되거나 학업 중도로 이어질 수 있음(Nambiar, 2020)

□ 성인기

○ 청소년기를 지난 성인 초기의 단계는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해 친밀감 대 고립감의 단계임(Crain, 2010)

○ 경계선지능인은 학교 졸업 후 성인으로서 요구되는 사회생활을 수행해야 하지만 학령기, 청소년기 과정에서 사회적 교류 경험이 부족하고, 학교 졸업 후의 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자립 준비가 부족한 상황임

○ 타인에 대한 관심을 넓히고 의미 있는 대인 관계를 형성하여 친밀감(intimacy)을 넓힐 필요가 있으나 지역사회에 속하거나 이웃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으로 고립감을 경험하게 됨

○ 성인 중기에는 생산성 대 자기 침체단계로 사회에서 의미있는 구성원으로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발휘해야 하는 시기이지만 성인이 되어도 경제적 자립을 하지 못하여 성인 경계선지능인의 경우 침체를 경험하며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음(Erikson, 1968; Soenen et al., 2016)

○ 성인기에 필요한 지식과 지역사회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직업에 따른 근로환경에 적응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나타냄(Soenen et al., 2016)

3. 경계선지능인의 선별 및 진단

3-1. 국내 장애 진단 체계

○ 장애 관련 진단은 국내에서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됨

○ 학령전기와 학령기가 되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함

○ 영유아기에 장애 진단을 위해서는 의료 및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영유아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2개월~6개월) 생후 71개월이 될 때까지 총 8회에 걸쳐 검진을 받음

○ 3차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생후 18개월~24개월)에 건강 검진 결과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제출함

○ 진단 및 평가는 보건소 또는 병·의원에서 영유아 건강 검진으로 한국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를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 진단을 받거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특수교육 진단 및 평가를 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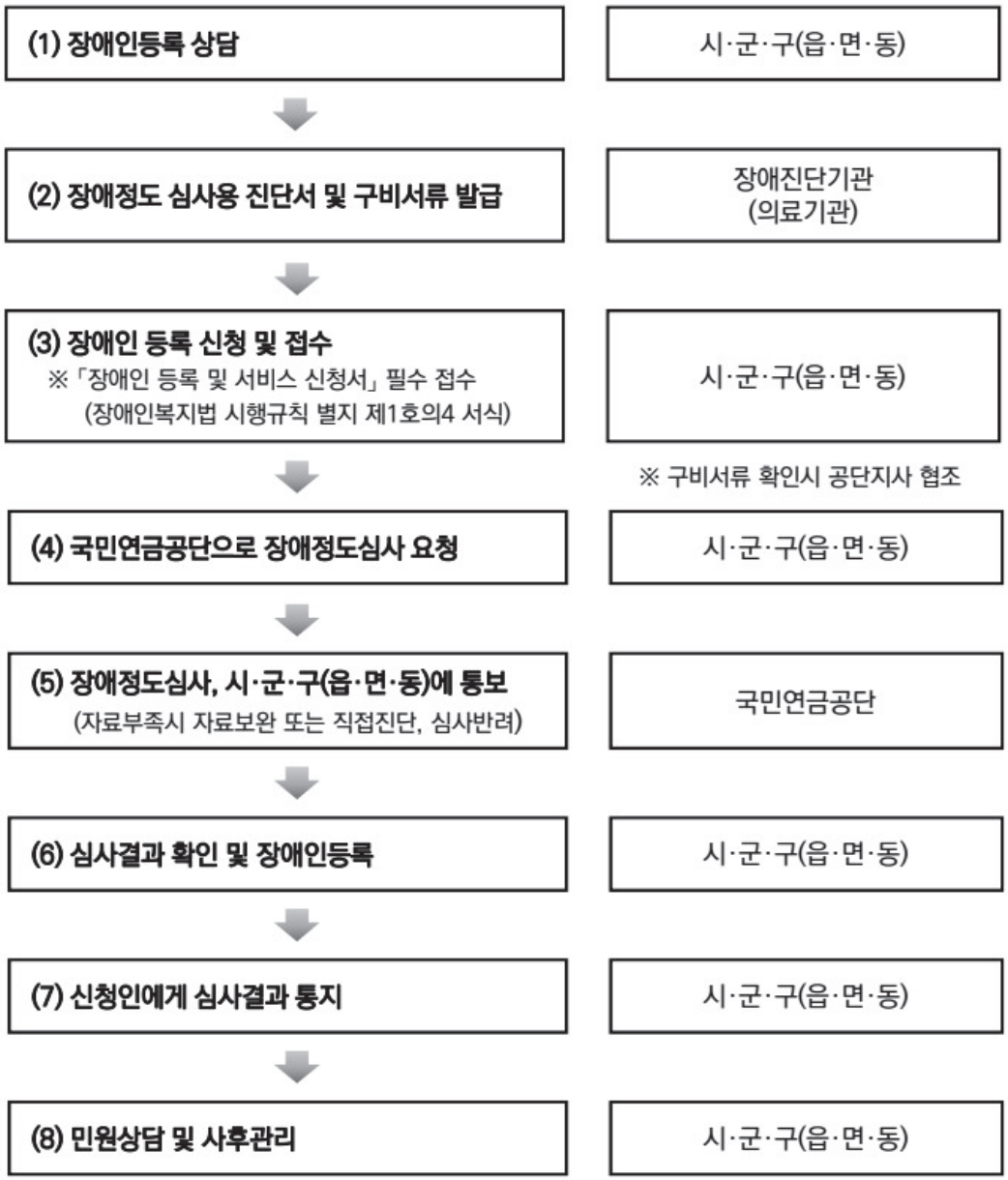
○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으나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지적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에 의하면 “지적장애인은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 혹은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지적장애의 판단기준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가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소아청소년의 경우는 발달단계로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는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 기간에 받는 경우 향후 장애 상태가 변화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실시해야 함

○ 지적장애 기준은 웩슬러 지능검사 등 개인용 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능지수(IQ)에 따라 판정하며, 일반능력 지표(General Ability Index: GAI) 및 사회성숙도 검사를 참조하여 판정됨

〈그림 Ⅱ-1〉 국내 장애인 등록 절차



출처: 정부 24 장애인등록 신청 참조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1&CappBizCD=14600000117

3-2. 특수교육대상자 선별 및 진단 체계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2007년 제정된 교육법으로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학생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학생들이 적절한 교육을 제공받아 자아실현 및 사회통합을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함

○ 특수교육 대상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진단·평가된 사람으로 규정함

○ 현재 각 지역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역사회의 병·의원과 연계된 의료적 및 교육적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협력기관에 진단과 평가를 의뢰하고 검사기관에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을 시행하고 있음

○ 경계선지능인 관련 특수교육에 대한 논의는 한국학습장애학회에서 2014년 학습장애 선정 및 절차에서 지능지수 70 이상으로 규정하여 경계선지능 학생 중 학습에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

○ 그러나 2022년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학습장애로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는 학생들은 전체 특수교육 대상학생 중 1% 수준인 1,078명인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경계선지능 학생들은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유추됨

3-3. 경계선지능인 선별 및 진단 체계

□ 경계선지능 아동의 선별 및 진단

○ 진단의 목적은 진단 결과로 집단에서 낙인의 의미가 아니라, 개인의 발달과정에 부정적인 요인들을 발견하여 조기진단과 예방을 그 목적으로 함

○ 경계선지능 아동의 조기진단은 조기에 효율적 개입과 중재를 가능하게 하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발달상의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고, 학업적 성취와 적응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조기진단이 중요한 첫 시작이지만 경계선지능 아동은 영유아기에 특별한 징후들이 나타나지 않아 학령 전에는 발견의 어려움이 있고, 학령기가 되어야 학습 부진으로 진단이 의뢰되는 경우가 많음(김동일, 2023; 정하나 외, 2021)
○ 지능검사도구는 현재 국내에서 웩슬러 지능검사를 주로 사용하고 그 결과 경계선지능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지적장애 평가에서도 지능검사 이외에 사회성숙도 검사와 같은 사회 부적응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것과 같이 경계선지능 아동에게도 사회 부적응에 대한 검사(사회성숙도 검사, 문제행동 척도, 인성 척도 등)나 기초학습기능평가 실시가 필요함(정하나 외, 2021)
○ 지능검사 외에도 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한 선별 검사가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고, 그 중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20)에서 개발한 “느린 학습자 선별 체크리스트”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음

□ 선별검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20년 느린 학습자 선별 체크리스트를 개발함. 본 체크리스트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함
○ 체크리스트를 통한 선별검사의 목적은 경계선 지능(IQ 71~84)으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의심되는 아동을 1차로 선별(screening)하는 데 목적을 둠
  - 체크리스트는 언어, 기억력, 지각, 집중, 처리속도 5영역 23문항으로 구성
  - 하위 요인별로는 언어 5문항, 기억력 6문항, 지각 4문항, 집중 5문항, 처리속도 3문항임.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본 검사 점수의 최저 23점에서 최대 92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경계선지능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
○ 선별 체크리스트는 학생을 잘 아는 담당 교사 혹은 최소 3개월 이상 대상 학생을 관찰한 자가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 느린 학습자 선별을 위한 체크리스트의 판정기준 및 항목별 문항은 다음 〈표 Ⅱ-2〉와 〈표 Ⅱ-3〉과 같음

〈표 Ⅱ-2〉 느린 학습자(경계선지능) 선별검사 판정기준

구분	**선별 체크리스트 점수에 따른 판정기준**		
집단 판정	경계선지능 위험군	경계선지능 탐색군	일반군
1학년	64점 이상	58점 이상~64점 미만	58점 미만
2학년	62점 이상	53점 이상~62점 미만	53점 미만
3학년	59점 이상	53점 이상~59점 미만	53점 미만
4학년	60점 이상	54점 이상~60점 미만	54점 미만
5학년	56점 이상	51점 이상~56점 미만	51점 미만
6학년	60점 이상	52점 이상~60점 미만	52점 미만

〈표 Ⅱ-3〉 느린 학습자(경계선지능) 선별검사 항목별 문항

영역	**선별 체크리스트 문항**
언어 (5문항)	1. 단순한 질문에는 대답하지만, 생각해야 하는 질문에는 논리적으로 표현하지 못한다. 2. 상대방이 말한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3. 말을 할 때 적절한 단어를 떠올리지 못해 머뭇거린다. 4.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으면 엉뚱한 행동을 한다. 5. 또래보다 어휘력이 부족하다.
기억력 (6문항)	6. 오늘 배운 내용을 다음날 물어보면 기억하지 못한다. 7. 여러 번 반복해도 잘 기억하지 못한다. 8. 방금 알려주었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9. 연속적인 순서를 기억하지 못한다. 10. 수업시간에 손을 들지만 물어보면 대답을 잊어버린다. 11. 순서가 있는 활동에서 자신의 차례를 잊어버린다.
지각 (4문항)	12. 비슷한 글자나 숫자를 읽을 때 자주 혼동한다. 13. 상하좌우 등 방향을 혼동한다. 14. 비슷하게 발음되는 단어들을 듣고 구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15. 간단한 그림이나 도형을 보고 그대로 따라 그리기 어려워한다.
집중 (5문항)	16. 과제를 할 때 주의가 산만해진다. 17. 과제를 할 때 주의집중 시간이 짧다. 18. 교사의 안내나 지시에 집중하지 못하고 관련 없는 행동을 한다. 19. 수업시간에 과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다. 20. 주의집중을 필요로 하는 활동에서 또래보다 쉽게 지친다.
처리속도 (3문항)	21. 또래보다 학습속도가 느리다. 22. 정해진 시간 내에 과제를 마치지 못한다. 23. 칠판이나 책에 쓰여 있는 단어나 문장을 노트에 옮겨 적는 데 오래 걸린다.

Ⅲ. 국내·외 관련 정책 동향 및 운영사례

1. 국내·외 관련 정책 현황 및 사례

1-1. 국내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 현황

□ 경계선지능인 관련 조례

○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주민의 이해와 요구들을 반영하여 지역 상황에 적합한 조례 제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28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을 보장한다는 것을 근거로 경계선지능 관련 조례들이 제정되고 있음

○ 과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 사회복지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해 왔으며, 사회복지 조례는 지역사회복지를 강화해 나가는 역할을 해 옴

○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복지 관점에서의 관심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복리를 목적으로 「평생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위임조례가 아닌 자주조례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음

○ 현재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법률은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경계선지능인 당사자와 가족의 삶의 긍정적인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이미 제정된 조례들을 살펴보고 보다 실효성을 갖춘 방향으로 제정·개정 검토 과정의 필요성도 요구됨

○ 지방자체단체별 경계선지능과 느린 학습자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고, 경계선지능 관련 조례 현황은 〈표 Ⅲ-1〉, 느린 학습자 관련 조례 현황은 〈표 Ⅲ-2〉와 같음

〈표 Ⅲ-1〉 지방자치단체별 경계선지능 관련 조례 제·개정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명(제정일)	대상/선별기준
1	강원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2022.10.14.)	
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2023.9.27.)	
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2023.3.3.)	24세 이하
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2024.3.7.)	18세 미만
5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2022.4.21.)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명(제정일)	대상/선별기준
6	경기도 고양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2023.2.7.)	
7	경기도 광명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2023.11.10.)	
8	경기도 구리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2023.3.13.)	
9	경기도 남양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2024.2.15.)	
10	경기도 성남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2022.10.31.)	
11	경기도 안양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2023.12.29.)	
12	경기도 양평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2023.5.1.)	
13	경기도 여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2022.12.21.)	
14	경기도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2024.3.28.)	
15	경기도 용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2023.9.27.)	
16	경기도 의왕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2023.7.31.)	
17	경기도 의정부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2022.12.29)	
18	경기도 평택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2023.10.24.)	
19	경기도 포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2023.4.19.)	
20	경상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2023.1.2.)	
21	광주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2021.6.1.)	
22	광주광역시 남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2022.12.28.)	
23	대구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2023.10.4.)	
24	대구광역시 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2024.3.4.)	
25	대전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2023.12.29.)	
26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2024.3.29.)제정	18세 이하
27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2023.4.5.)	
28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2024.3.15.)	
29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2020.10.5.)	
30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2023.9.20.)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명(제정일)	대상/선별기준
31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2022.12.30.)	
32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2021.7.15.)	
3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2021.12.30.)	
3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2021.12.29.)	19세 미만
35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2021.2.8.)	
36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2022.11.10.)	
37	서울특별시 용산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2023.11.10.)	
38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2022.11. 24.)	
39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2023. 4. 3.)	
40	세종특별자치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2023. 10.4.)	
41	울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2023.5.18.)	
42	울산광역시 중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2023.4.3.)	19세 미만
43	인천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2023.7.14)	
44	전라남도 무안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2023.12.26.)	
45	전북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2023.8.7.)	
46	제주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2023.8.7.)	
47	충청남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2023.3.10.)	
48	충청남도 당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2023.1.30.)	
49	충청남도 보령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2023.10.10.)	
50	충청남도 서산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2023.5.31.)	
51	충청남도 천안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2023.4.3.)	
52	충청남도 청양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2023.12.27.)	
53	충청북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2023.11.3.)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2024.4.2. 기준 인출.

주. 10개 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등임.

〈표 Ⅲ-2〉 지방자치단체별 경계선지능 관련 느린학습자 조례 제·개정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명(제정일)	대상/선별기준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2023.3.9.)	
2	대전광역시 동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2023.9.27.)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2023.12.15.)	
4	부산광역시 강서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2023.7.3.)	
5	부산광역시 동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2023.8.10.)	
6	부산광역시 연제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2022.12.23.)	
7	서울특별시 강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2023.12.27.)	
8	서울특별시 구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2021.12.30.)	
9	서울특별시 금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2023.1.10.)	
10	서울특별시 도봉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2023.11.9.)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2022.12.30.)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2022.11.10.)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2023.7.6.)	
14	서울특별시 은평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2023.11.9.)	
15	전라남도 여수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2023.12.6.)	
16	경기도 오산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2022.5.13.)	
17	인천광역시 동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2023.10.11.)	
18	인천광역시 부평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2024.4.1.)	
19	인천광역시 연수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2024.3.20.)	
20	경기도 파주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2023.7.17.)	
21	경기도 하남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2023.3.7.)	
22	충청남도 홍성군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2022.10.31.)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2024.4.2. 기준 인출.

□ 초·중등교육법 관련 조항

○ 경계선 지능과 관련하여 이전에는 '학습지진(slow learner)'이라는 용어로 지능지수 70~85이며, 지적 능력의 저하로 학업성취가 떨어진 아동으로 학기말 종합 성적이

40% 이하에 포함되는 교사의 임상적 판단에 의해서 분류된 학생을 의미함(강옥려, 2016)

○ 최근에는 경계선지능과 관련된 용어로 ‘경계선급 정신지체(borderline mental retardation),’ ‘느린 학습자(slow learner),’ ‘애매한 아동(gray area kids),’ ‘경도 인지적 손상(mild cognitive impairment),’ ‘일반적인 학습장애(general learning disabilities)’ 등 여러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

○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용어의 사용과 경계선지능인 지원과 관련 제정된 법률은 없는 현실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를 근거로 법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음

〈표 Ⅲ-3〉「초·중등교육법」 제28조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22. 12. 27.〉 1.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2. 학업 중단 학생, 3.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2022. 12. 27.〉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7.〉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신설 2016. 2. 3., 2022. 12. 27.〉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2022. 12. 27.〉

⑥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지도·감독 및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2022. 12. 27.〉

⑦ 학교의 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0., 2021. 3. 23., 2022. 12. 27.〉

⑧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및 제7항에 따른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16. 12. 20., 2021. 3. 23., 2022. 12. 27.〉

⑨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학생이 교육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7.〉

⑩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용에 필요한 정보 수집 범위, 방법, 절차, 보존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2. 27.〉

□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년)

○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은 교육의 형평성 제고 및 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 지원과 교육의 본질적 의미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국가에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교육 정책에 근간을 둠

○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있었고, 2012년도부터는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보편적인 기초학력보장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해오고 있음

○ 경계선지능 관련 정책은 2022년 교육부에서 경계선지능을 포함한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정책 발표로 이루어지기 시작함

○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른 종합계획은 국가와 시도교육청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습자의 책무성을 강조하여 국가 교육 책임제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과제로 경계선지능 진단, 지원, 기반 계획을 포함하여 진단, 지원, 예방, 기반 내실화의 네 가지 분류를 통해 관련 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표 Ⅲ-4〉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

분류	내용
진단·선정	·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교사의 관찰과 면담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학생을 선별할 수 있는 선별절차를 체계화하고, 필요한 경우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 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하여 경계선지능 등 특수요인에 따른 진단을 지원
지원	·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과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 도구를 연계하여 단위학교에서 표준화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진단 검사 결과와 교사의 관찰·면담 등을 바탕으로 학교 내 협의회에서 지원 대상 학생을 확정할 수 있도록 선정 절차를 체계화 · 필요한 경우 경계선 지능 등 특수요인에 의한 기초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전문역량 강화, '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위(Wee)센터',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등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학습자 통합 진단 및 지원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
예방	· 방과후 소규모 교과 보충수업과 학습지원 튜터를 통한 '튜터링'을 지원하여 학습결손을 예방하고, 학생의 심리·정서 안정과 사회성 함양을 위한 단위학교 자율프로그램 운영을 지원
기반 내실화	· 단계별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신규 개발하여 시도별로 운영하도록 하며, 기초학력 담당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컨설팅과 지역 여건에 따른 혜택 제공을 시도교육청과 협의 · 예비교사의 현장 경험과 기초학력 지도 역량을 위한 교직과목과 교육실습, 교육봉사 연계를 지원하고, 국가 및 시도 단위의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하여 기초학력의 현황 조사, 성과관리, 정책개발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국내 경계선지능인 관련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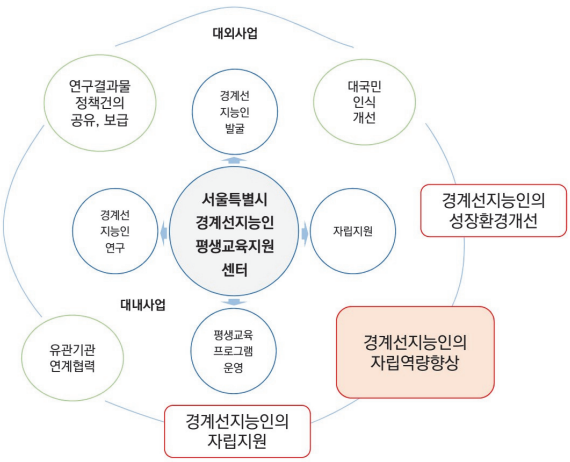
○ 우리나라에서 경계선지능인 관련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특별시가 유일함. 서울특별시는 2020년 10월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를 근거로 2022년 6월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설치함. 경계선지능인의 꿈을 평생 밀어주는 센터라는 의미로 또 다른 이름으로는 '밈(mim)'으로 불림

○ '밈'센터의 이용대상은 경계선지능인이 겪는 발달단계별 어려움에 대한 적절한 배려와 개입을 위해 영유아기부터 성인에 이르는 서울시 거주 또는 서울시 소재(학교 및 직장에 재학·재직) 중인 시민 중 경계선지능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함. 본 연구를 통한 센터 관계자의 면접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대상의 이용 빈도가 높은 편이지만 학령기를 마친 이후의 청년층 이용 빈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함

○ '밈'센터의 주요 사업은 평생교육사업, 자립지원사업, 연구기획사업 등으로 구분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경계선지능인 관련 연구개발, 발굴 및 선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진로 개발 및 취업 지원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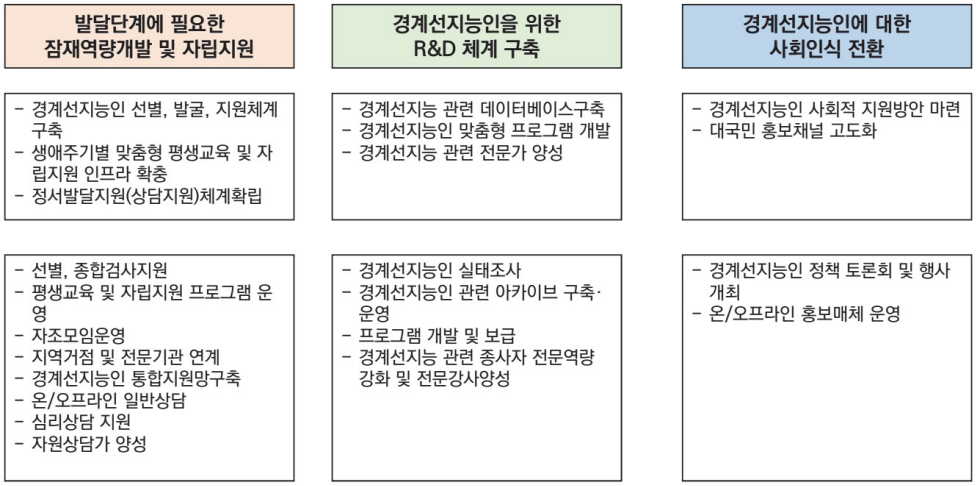
- 경계선지능인 관련 각종 연구결과물을 통해 정책 건의와 관련 기관과의 공유·전파하고,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한 다양한 자립지원 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그림 Ⅲ-1〉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체계도



출처 :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그림 Ⅲ-2〉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추진사업



출처 :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1-2. 국외 관련 연구동향 및 사례

□ 국외 연구동향

○ 국외에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 말과 1990년대 후반에 주로 이루어졌으며, 과거에는 지적장애 분류로 보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장애나 지체로 분류되지는 않음(Peltopuro et al, 2014)

○ 경계선지능 관련 연구에서 경계선지능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과 비교 시, 전반적인 인지 능력 관련 과제에서 수행능력이 낮고, 처리속도가 늦다고 함(Alloway 2010; Hartman et al 2010). 학업 이외에 사회적 적응과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연구는 변수 통제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임

○ 경계선지능 성인 관련 사회경제적 적응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고, 사례연구에서 사회적 참여와 결혼, 신체건강, 경제활동 여부 등은 큰 차이가 없으나 직업적 위신과 임금 수준, 주관적 안녕에서는 일반 지적기능 성인보다 낮은 경향을 보임

○ 또한 경계선지능 성인의 사회경제적 적응이나 자립을 다룬 연구는 드물고, 경계선지능 진단 특성상 대규모 표본 조사를 기반으로 한 실증 연구가 거의 없고, 사례연구 수준임

□ 국외 경계선지능인 관련 지원 사례(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2003)

○ 미국은 생활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에서 2017년도에 경계선지능을 포함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 경계선지능으로 근로나 기초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가능함
- 심각 또는 현저한 수준의 어려움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학교기록, 교사 또는 다른 사람의 증언 등을 지능검사 결과와 함께 제시하는 방안을 제안함
- 이외에도 각 주별로 장애인과 근로자 보장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스페인은 카탈루냐 지역이 대표적인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례로, 인구의 약 3% 정도를 경계선지능인 인구로 추정하고 있음. 경계선지능인 개입을 위해 발견 및 진단 5단계 과정을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1단계에서는 경고신호를 통한 발견 과정, 조기 중재를 강조함
- 2단계에서는 경계선지능을 확인하는 단계로 진행함
- 3단계에서는 법·의학 단계로 발견 영역과 진단을 검토함
- 4단계에서는 발견과 진단 과정에 포함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5단계에서는 선별과 확인 단계로 선별 및 진단평가 도구를 활용함

○ 네덜란드는 국제 진단기준인 DSM 기준에 따라 경계선지능을 정의하고 지적장애와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하지는 않으나 동일한 지원을 제공함
- 경계선지능인이 지적장애인과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청소년 등의 관련법에 따른 다른 서비스에서도 지적장애인과 동일한 대상임
- 그 외에도 장기요양법, 사회지원법, 건강보험법, 장애인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평등 대우법 등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이상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공통된 점은 첫째, 조기 감지와 진단, 둘째, 개별 맞춤형 계획 수립, 셋째, 다양화되고 개별화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사례관리의 중요성, 넷째 개별 사례 지원을 위한 부서 간, 다학제 간 네트워크 구축을 강조함

○ 그럼에도 현실적으로는 제공되는 서비스는 돌봄과 기초소득 보장이 주를 이루고, 실제 개별화 욕구에 따른 맞춤지원은 그 한계가 있음

○ 실제 개별적인 욕구의 다양성은 고도화 사회변화에 따른 직업군의 변화와 이에 직업훈련 재편이 요구되지만 한정적인 예산과 전문인력 지원 문제로 증가되는 경계선지능인의 욕구를 반영하기 어려움. 특히 경계선지능인의 사회경제적 자립에 필수적인 고용 지원은 제한적 교육훈련만 이루어지고 있음

○ 사례에서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의 조기 선별과 진단, 개별 맞춤형 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 설립 혹은 기관간의 협의가 필요함

2.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정책 현황

2-1. 제주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현재까지 제정된 경계선지능 관련 정책은 2023년 8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근거로 두고 있으나, 현재 동법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임

○ 다만, 「평생교육법」에 근거로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 계획'에 따른 2024년 시행계획 주요과제 중 '2-2-46. 경계선지능인 기초연구' 세부과제가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한 현장의 탐색적 기초 연구 차원에서 본 연구를 수행함

○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 강화와 지원에 대한 내용을 언급함.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이 「특수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 2016년 5월 29일 이관·개정됨에 따라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특히 정부는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8~2022)」과 국정과제 시행계획 수립에 따라 평생교육 등 생애주기별 특수교육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을 할 때 학령기 의무교육단계부터 경계선지능 학생 등 교육기회를 놓치는 학생 및 장애인의 교육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필요성 논의는 이루어져 왔으나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은 미흡함

〈표 Ⅲ-5〉 제주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 관련 조례 등

관련 조례 등	경계선지능 관련 조항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2023.3.)	(비전) 미래 제주를 열어갈 교육-산업 융복합 평생학습 사회 구현 (목표) 산업과 교육이 상호 성장을 견인하는 평생학습 체계 구축 (주요과제) 1. 산업변화 선도 미래형 융복합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2. 사각지대 없는 평생교육 격차 해소 2-2-46. 경계선지능인 기초연구 3. 생애도약 평생학습 지원 및 경력·학력 이력간 상호 연계 4. 지역교육 자원 간 자원 공유 및 세계시민 육성
제주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2023.8.7.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민의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을 「평생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정책협력과 내부자료.

2-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원 정책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3년 5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인 학생 지원조례」,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 등 법적 근거를 통해 경계선지능 학생 혹은 난독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느린 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음

〈표 Ⅲ-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관련 조례

관련 조례	경계선지능 관련 조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2023. 5.10.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 학생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 학생의 실태 파악 및 그에 필요한 검사의 실시, 2.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재의 개발 및 학습 프로그램의 지원, 3. 경계선지능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상담 지원, 4.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원 및 학부모 연수, 5. 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6. 2. 3., 2022. 12. 27.〉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용할 수 있다.〈신설 2022. 12. 27.〉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신설 2016. 2. 3., 2022. 12. 27.〉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2022. 12. 27.〉 ⑥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지도·감독 및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16. 2. 3., 2022. 12. 27.〉 ⑦ 학교의 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6. 12. 20., 2021. 3. 23., 2022. 12. 27.〉 ⑧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및 제7항에 따른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16. 12. 20., 2021. 3. 23., 2022. 12. 27.〉 ⑨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학생이 교육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7.〉 ⑩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용에 필요한 정보 수집 범위, 방법, 절차, 보존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2.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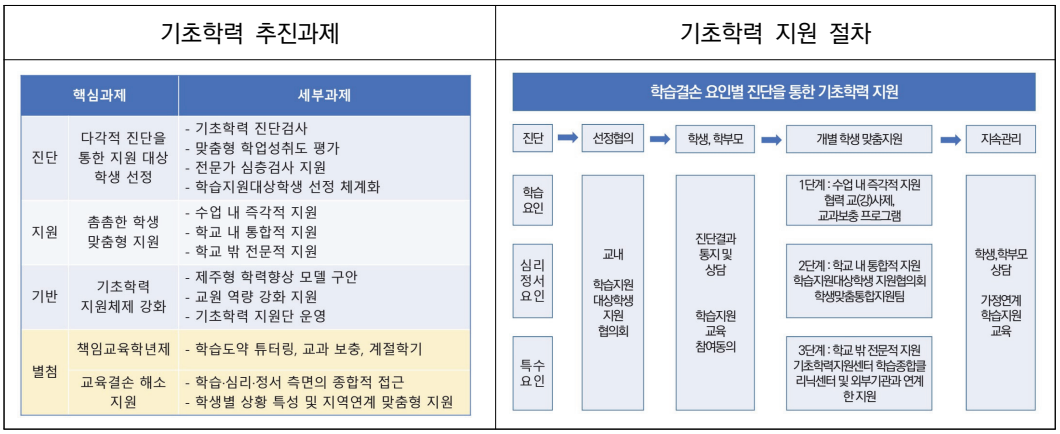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위의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2024학년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2023. 12. 28)을 수립하고 기초학력 보장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학생맞춤통합지원팀 운영을 통한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통합적이고 종합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음

○ 개별 학생 맞춤지원을 위해서는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1단계 수업 내 즉각적 지원, 2단계 학교 내 통합적 지원, 3단계 학교 밖 전문적 지원으로 운영함. 단계에 따라 협력 교(강)사제, 방과후 교과보충 프로그램,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인공지능(AI) 활용 스마트학습, 전문기관 연계 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그림 Ⅲ-3〉 제주특별자치도 2024년 기초학력 추진과제 및 지원 절차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4학년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서

○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 보장 시행에 따라 학습결손 요인에 따른 진단과 지원을 시행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는 기초학력지원센터, 제주시 및 서귀포시 교육지원청에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구축하여 경계선지능 학생 대상 관련 사업을 시행해 나가고 있음

○ 진단 및 선별 단계에서 경계선지능으로 판별되지 않더라도 학생의 부진요인에 따라 난독·난산학생 치료비 지원, 1대1 읽기학습 프로그램, 1대1 기초수학 프로그램, 학습코칭 등 학생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복지과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음

〈표 Ⅲ-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관련 지원 사업

사업명		내용	대상	검사도구
2023	인지능력향상 프로그램 (경계선 지능 탄탄)	· 학습연구년 교사 주 2회 학교 방문 협력수업 혹은 방과후 1:1 개별 지도 · 서울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연계 전문가 컨설팅 및 연수 지원 · 기초학습기능 검사 결과에 따라 기초교과 학습 지원	초등	· 느린 학습자 체크리스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웩슬러 지능검사
	경계선 지능 학생 치료비 지원	· 임상심리사의 종합심리검사 지원 · 경계선지능 학생 치료비 지원 (학생 1인 기준 200만원 이내)	초등 중등	· 종합심리검사 보고서 (웩슬러지능검사 포함) · 의사 진단서
2024	인지능력향상 프로그램 (경계선 지능 탄탄)	· 담임교사의 경계선지능 의심학생 대상 체크리스트 실시 · 임상심리사의 학교방문 지능검사 실시 후 대상학생 선정 · 학습연구년 초등교사의 주 3회 학교 방문 대상학생 1대1 맞춤형 지도 · 서울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연계 전문가 컨설팅 및 연수 지원	초등	· 느린 학습자 체크리스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웩슬러 지능검사
	경계선 지능 학생 치료비 지원	· 경계선지능 전문가 지원단 운영 · 경계선지능 학생 치료비 지원 (학생 1인 기준 200만원 이내)	초등 중등	· 종합심리검사 보고서 (웩슬러지능검사 포함) · 의사 진단서

3. 시사점

○ 이상의 국내·외 정책 동향 및 운영 사례를 살펴본 결과,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치료 및 정책적 지원에 있어서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신경발달 장애와 같은 기저 질환과 함께 치료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또한 경계선지능인은 대상자별로 다른 질환의 전반적인 진단에 따라 치료 계획이 결정되는 특성이 파악됨

○ 무엇보다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에 따른 다양한 조건에서 맞닿아 있는 과업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문적 중재가 필요함. 즉, 대상자별 필요에 따른 지역사회 및 교육 기술 구축 프로그램, 교육 및 직업 편의 시설, 직업(특정 직무 기술) 훈련, 인지 행동 치료(CBT), 가족 교육, 사례 관리, 성인을 위한 주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정책이 요구됨

○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에는 학교 현장에서의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을 근거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 이외에 「제주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2023. 8. 7.제정)에 따른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이 부재한 상황임

○ 따라서 향후 제주지역의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밈'센터 사례처럼 제주지역의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정책적 요구 분석을 근거로 기본계획 수립 및 생애주기별 지원 체계 마련이 요구됨

Ⅳ. 면접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경계선지능인의 특성 및 당사자와 관계자의 정책 수요 등을 도출

○ **조사 시기** : 2024년 6월 중 대상자 그룹과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진행

○ **조사 횟수** : 총 11회 (개별면접 6회, 초점집단면접 5회)

○ **조사 대상** : 경계선지능인 당사자, 보호자, 교사, 현장 전문가

○ **자료 수집 및 분석의 한계**

- 모든 조사는 집단조사를 우선 적용하였으나, 조사 대상 및 내용의 특성상 집단조사를 선호하지 않는 대상이 많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조사 대상자가 희망하지 않거나 부득이하게 일정 조정이 어려운 경우 개별조사를 실시함
- 최종적으로 전체 11회 면접조사 중 5회의 집단면접, 6회의 개별면접이 진행되었으며, 각 면접의 참여자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 시간을 설정함
- 수집된 자료는 동질적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집단의 특성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가진 참여자 등을 고려하여 주요 질문 내용 중심으로 공통 이슈와 요구를 도출함

1-1. 조사 대상

□ 경계선지능인 보호자

○ 경계선지능인 보호자 면접을 위해 면접조사 대상으로 총 8명을 표집하였고, 개별면접의 형태로 1명, 초점집단면접의 형태로 7명의 조사가 진행됨

- 이 과정에서 경계선지능인 보호자의 경험이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자, 보호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의 현재 연령대 기준으로 의도적 표집을 진행함

〈표 Ⅳ-1〉 경계선지능인 보호자 면접조사 참여자

참여자 구분	면접유형	성별	경계선지능인 자녀 학교급별 등 특성
보호자①	집단	여	고등학교
보호자②	집단	여	성인
보호자③	집단	여	성인
보호자④	집단	여	초등학교
보호자⑤	집단	여	초등학교
보호자⑥	집단	여	중학교
보호자⑦	집단	여	고등학교
보호자⑧	개별	여	중학교

□ 경계선지능인 당사자

○ 경계선지능인 당사자 면접을 위해 면접조사 대상으로 총 8명을 표집하였고, 개별면접의 형태로 4명, 초점집단면접의 형태로 4명의 조사가 진행됨

- 이 과정에서 경계선지능인 당사자의 경험이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자, 보호자와 마찬가지로 연령대를 기준으로 의도적 표집을 진행함

〈표 Ⅳ-2〉 경계선지능인 당사자 면접조사 참여자

참여자 구분	면접유형	성별	학교급별 등 특성
당사자①	집단	남	초등학교
당사자②	집단	남	초등학교
당사자③	집단	남	중학교
당사자④	개별	남	중학교
당사자⑤	개별	남	고등학교
당사자⑥	집단	여	고등학교
당사자⑦	개별	남	성인
당사자⑧	개별	남	성인

□ 교사

○ 교사 면접조사를 위해 총 6명의 대상자를 표집하였고, 개별면접의 형태로 1명, 초점집단면접의 형태로 5명의 조사가 진행됨

- 현장에서 경계선지능인을 경험한 적이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표집을 실시하였으며, 경계선지능의 특성상 특수학생과의 차이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특수학교에서 재직하고 있는 교사를 일부 표집함

〈표 Ⅳ-3〉 교사 면접조사 참여자

참여자 구분	면접유형	성별	참여자 특성
교사①	집단	여	전 학년
교사②	집단	남	고등학교
교사③	집단	여	초등학교
교사④	집단	여	특수학교
교사⑤	집단	여	초등학교
교사⑥	개별	남	특수학교

□ 현장 전문가

○ 현장 전문가 면접조사를 위해 총 6명의 대상자를 표집하였고, 해당 대상자의 면접은 모두 초점집단면접의 형태로 진행됨

- 지역 내에서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 병원 등 현장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중 대상자를 표집함
- 현장 전문가 조사에 참가하는 전문가들이 한 번에 참여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활용한 집단면접조사를 실시함

〈표 Ⅳ-4〉 현장 전문가 면접조사 참여자

참여자 구분	면접유형	성별	참여자 특성
현장 전문가①	집단	여	언어치료센터
현장 전문가②	집단	여	병원
현장 전문가③	집단	여	병원
현장 전문가④	집단	여	발달재활센터
현장 전문가⑤	집단	여	통합발달센터
현장 전문가⑥	집단	여	심리상담센터

1-2. 조사 내용

○ 설문조사 내용 구성 : 공통질문과 개별질문으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일반내용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대상자별 개별질문에 대한 조사를 함께 진행함

○ **공통질문 내용** : 조사의 모든 참여자를 대상으로 일반사항, 경계선지능인의 특성,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대한 정책 수요 등의 공통적 문항으로 구성함

○ **개별질문 내용** : 조사 대상 그룹별로 구분하여 특성에 따라 개별 문항으로 구성함

- **경계선지능인 보호자** : 보호자로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내용 도출을 위한 문항
  · 경계선지능 진단 경험, 치료 및 서비스 이용 경험, 보호자로서 어려운 점 등
- **경계선지능인 당사자** : 참여자 본인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도출하기 위한 문항
  ·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점, 타인에게 도움을 받은 경험 등
- **교사** : 학교 현장의 업무상 경험하는 문제점들을 도출하기 위한 문항
  · 교실 내 경계선지능인 진단 경험, 학부모 및 당사자 협조의 어려움 등
- **현장 전문가** : 현장 전문가로서 경험하는 문제점들을 도출하기 위한 문항
  · 현장에서의 경계선지능인 진단 현황, 경계선지능인들이 경험하는 어려움 등

〈표 Ⅳ-5〉 면접조사 질문 내용

구분		질문 내용
공통질문		·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 경계선지능인의 특성 ·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대한 정책 수요
개별질문	보호자	· 경계선지능 진단 경험 · 치료 및 서비스 이용 경험 · 보호자로서 어려운 점
	당사자	·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점 · 타인에게 도움을 받은 경험
	교사	· 교실 내 경계선지능인 진단 경험 · 학부모 및 당사자 협조의 어려움 경험
	현장 전문가	· 현장에서의 경계선지능인 진단 현황 · 현장에서 경험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어려움

2. 면접조사 결과

2-1. 경계선지능인 보호자

2-1-1. 경계선지능 인식 및 진단

○ 조사에 참여한 보호자들을 통해 인식 및 진단 경험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해 보면, 별도의 사건들이 존재하는 아동들을 제외하면 부모, 교사 등 보호자의 인지가 빠르게 이루어질수록 진단 또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그러나 현실에서는 경계선지능이라는 개념이나 심각성에 대한 지식과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견이나 대응이 늦어지는 것으로 확인됨

□ 주변의 권유로 최초 진단 받는 경우가 대다수

○ 경계선지능인 여부에 대한 최초 인식과 관련하여, 다수의 사례조사에 참여한 보호자들은 스스로 인지하기보다는 선생님, 지인 등 주변에서의 권유로 인해 최초로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담임선생님께서도 전혀 별다른 부정적이거나 이런 피드백은 없었었거든요. 그런데 1학년 말이 되어 보니 주의 집중 이런 거 보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번씩 좀 동문서답 같은 걸 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진단을 좀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희도 3살에서 4살? 말도 좀 느린 게 처음에는 얘가 돌 때 몸이 아파 개복 수술을 해서 조금 느린가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보기에 약간 눈 마주침도 없어 보이니까 (선생님께) 조금 그런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도 눈 마주침이 좀 안 되고, 다른 애랑 좀 어울리는 것도 좀 안 된다고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모르고 주변 사람이 그것도 다른 사람이 얘기해야 그런가보다 했는데, 한 서너 살 때 병원 가고, 어디 가고 했더니 (그때 알게 되어서) 그래서 4살 때부터 치료 받기 시작했고 그렇게 됐어요."

□ 자폐 스펙트럼, ADHD 등 별도의 진단과 치료 과정에 발견

○ 사례들 중에서는 자폐 스펙트럼이나 틱 장애, ADHD, 뇌전증처럼 별도의 질병이나 성장 과정 안에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들이 있는 아동의 경우, 해당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거나, 아동을 관찰하는 과정 안에서 발견됨.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질병 등의 이력이 없는 타 아동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찍 발견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말이나 눈맞춤이 늦길래 제 주변에 그쪽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상담 한번 받아봐야 된다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남자 아이고 그래서 조금 느릴 수 있다 싶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기를 놓쳐서 발달이 너무 지연되다 보니까 이제 후유증으로 뇌전증 오고 그래서…"

"저는 아이가 늦기도 늦는데 약간 자폐 성향을 보이니까 아이를 병원에 일찍 데려 갔거든요...이제 경계선지능이라고 생각한 거는 아이가 학습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발달이 느려서 지적장애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센터 치료를 계속하면서 이제 조금 계단식으로 아이가 조금씩 발달을 하는 거예요."

"일반 애랑 다르다고 느낀 거는 두 살 정도?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전문성을 갖고 본다기보다 그냥 일반상황 상 저게 자폐인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행동들을 좀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좀 걱정도 되고, 관심도 좀 많이 갖게 되고…"

□ 충분한 관심과 관찰을 받지 못할 경우 뒤늦게 증상 발견

○ 시설에 거주 중인 경계선지능인의 경우, 보호자의 충분한 관찰을 받지 못하거나 학대 등 후천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기에 발견되지 못하고 뒤늦게 증상 발현에 따라 진단하게 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시설에) 처음 올 때 틱 증상도 있었고, 나중에 이제 주의 집중이 되게 문제가 있고, 학습도 안 되고, 교육 관계도 잘 안되고, 복합적으로 이러면서 그때 검사해서 알게 돼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뇌파 검사를 하고 MRI도 정상이었는데 아이가 좀 멍하게 있는 것도 많았고, 좀 겉으로는 밝고 말도 많이 하는데 두서가 없고, 학습적인 부분도 많이 부족하고 기억을 잘 못했거든요."

2-1-2. 일상생활의 어려움

○ 면접조사 참여자들은 경계선지능을 가진 자녀들이 학교생활의 부적응, 타인과의 관계와 감정 조절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양육 과정에서 보호자는 물론 형제·자매 등이 정신적·심리적 상처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다고 호소함

○ 또한 최근에는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주위 시선을 의식하며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함

□ 관계 형성 및 유지의 어려움

○ 조사에 참여한 다수의 보호자들은 경계선지능인들이 단체 생활(학교생활 등)을 할 때, 적응이나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함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친구들하고도 안 맞고,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그 말에 맞게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친구들이 같이 대화하고 싶지 않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갭이 생기고, 대화도 안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애가 학교 가기 싫어요. 학교 그만둘래 막 이렇게까지 되고."

"친구가 누구한테 혼나가지고 '나 지금 너무 속상해. 나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 이러고 있는데, 얘는 옆에서 '그래 알았어. 근데 나 있잖아' 하면서 그냥 자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 일부 사례의 경우에는 이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음

"(좋아하는 이성 친구가 생기면) 주로 이제 그 친구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사귀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한다든가, 여자 친구가 있는데 있어도 그냥 계속 말을 걸고 스킨십을 한다든가… 친구들끼리 얘기하고 놀다가도 이제 그 남자애가 보이면 그냥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갔다 올게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라져 있어요."

□ 감정적인 행동으로 인한 돌봄의 어려움

○ 경계선지능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동적이거나 폭력적인 행동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양육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고 있음

"애가 수업시간에 앉아서 책을 펴야 하는데 하기 싫으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세서 안 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자꾸 펴라고 하니까 성질이 나서 책을 휴지통에 버려버렸대요."

"이게 조금만 해도 애들이 부딪혀서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 그거를 그냥 표현해버려요. 뭔가 대화를 해서 감정을 조절하고 이런 능력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나오거나 충동적으로 나오는 거죠. 한 번은 친구 때문에 너무 열받아가지고 주방에 있는 유리창을 깨고, 그래서 응급실에 급하게 가서 치료 받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 가족이 받는 정신적 상처

○ 경계선지능인 자녀 이외에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다른 자녀가 얻게 되는 정신적인 상처를 경험하기도 함

"저는 주변에서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는 엄마를 잘 만났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우리 작은 아이한테는 맞을지 몰라도 큰 아이한테는 아니었어요. 작은 아이를 보느라 큰 아이한테는 부모가 거의 없는 사람이었어요."

○ 또한 보호자들은 자녀의 경계선지능이나 이와 관련 질환들이 자신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 자책하고, 스스로를 학대하는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함

"저는 경계선지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몰랐고 이것 때문에 아이한테 뇌전증이 온 것 같아서 스스로를 되게 많이 학대했어요."

○ 일부 보호자의 경우는 주변의 어색한 시선이나 편견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으나, 사회적 편견 등의 시선은 과거에 비해 나아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학교나 학원에서도 이제 애 보는 시선이나 편견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옛날보다는 지금이 좀 많이 좋아지긴 한 것 같아요."

2-1-3. 치료 서비스 및 프로그램 이용

○ 면접조사에 참여한 보호자들은 경계선지능인의 경우 전반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일반인에 비해 습득이 늦은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특정 분야가 아닌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치료 서비스, 프로그램 이용 수요를 나타냄

○ 다만 치료를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계선지능인들이 생애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다양한 영역에서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 이용

○ 경계선지능인의 경우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어능력, 인지능력, 사회성, 신체활동 등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치료나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언어치료, 인지치료, 음악치료 받았고, 체육치료, 미술치료도 받았어요. 감각통합도 받고. 사회성 프로그램 뭐 그런 것도 받았고. 어디 프로그램 뭐 있다고 그러면 좋다고 하는 거 다 받았던 것 같아요"

> "모아 프로그램(부모랑 같이 교감하면서 하는 그룹수업)도 하고, 언어치료도 했었고, 감각치료도 했었고, 체육 활동도 하고…"

○ 경계선지능 이외에 별도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교육이나 상담 등의 치료와 더불어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사례도 존재하고 있음

> "병원을 다니기 시작한 지가 이제 4개월, 5개월 차인데요. 조용한 ADHD로 약물 복용하는 거랑 그리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사회성 그리고 언어 치료 이 두 가지를 좀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보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센터를 다니고는 있거든요."

□ 프로그램 이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 면접조사에 참여한 보호자들은 경계선지능을 가진 아동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한계가 발

생하고 있으며, 별도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경제적 부담을 호소함

"호기심 깨치기 수업이 있길래 신청해서 선생님이 오셨길래, '우리집은 아무 데나 돌아다녀도 상관 없습니다. 애가 오래 앉아있기 힘드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요청을 드렸는데, 원하는 대로 진행이 안 되어서…정해진 그것밖에 안되니까…(중략)…저희는 사비를 들여서 영어학원을 보내고 싶어도 보낼 데가 없어요. 뭔가를 가르쳐주려고 해도 보낼 데가 없어요. 일반학원 선생님들은 답답해하거든요"

□ 프로그램 다양성의 한계

○ 경계선지능인 보호자들은 도내에서 제공되고 있는 경계선지능 관련 프로그램들의 변화가 굉장히 느리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특정 연령대 이후에는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수가 급격하게 적어진다고 아쉬움을 표현함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프로그램 보면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늦고 그러니까 감각, 사회성, 언어 이런 거를 하는데 중학교 정도 가면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막상 보내려고 하면 갈 데가 없어요. 일반 애들이랑 하면 쫓아가긴 해도 갭이 있고."

"이 프로그램 자체가 보통 한 초등학교 4학년 그 정도의 수준까지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개발된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요."

○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특정 보호자의 경우는 별도의 교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보호자가 직접 자녀에게 학습 내용 등에 대해 교육하는 사례도 존재하고 있음

"주말에 하는 드럼 같은 게 있는데 혹시나 다른 아이들에게 방해가 안 된다고 하면 레슨을 조금 받아 보려고 했었고…(중략)…다행히 그때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다 집에서 수업을 했습니다.…(중략)…저는 애들한테 뭐가 부족하다 싶으면 그걸 연구를 해요.…(중략)…유치원을 보내려고 하니 기본적인 것은 제가 가르쳐서 보내야 선생님들도 포기하지 않겠구나 싶어서…"

2-1-4. 정책 수요

○ 면접조사에 참여한 보호자들은 경계선지능인 자녀들에게 필요한 진단과 치료, 학습 등 관련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빈번한 언급을 통해 호소하며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요구함

○ 또한 경계선지능인은 진단 시기와 그에 따른 치료가 중요하고, 생애주기별로 요구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유관기간 간 연계와 전문적 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을 제안함

□ 경제적 지원 강화

○ 경계선지능인 보호자의 면접조사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주제는 '경제적 어려움'이며, 이러한 경향에 따라 자연스럽게 경제적 지원 강화에 대한 정책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남

"어느날 보니까 월급 다 쓰고, 마이너스 통장 다 쓰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아이가 완전 발달 장애 등급을 받기에는 조금 힘든 케이스여서 일단은 받을 수 있는 바우처 범위가 좁아요…사비로 지출해야 되는 치료들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 경계선지능인의 보호자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점에서의 진단 및 치료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스스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무리가 되더라도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따라서 경제적 부담은 자녀가 성장할수록 더욱 가중되고 있음

○ 경계선지능에 해당하는 아동 중 빠른 시기에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는 아동의 경우 일상생활에 있어서 크게 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보호자들은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직접 확인하게 되고, 이후 엄청난 가계 부담을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음

"주변에서도 왜 이렇게까지 하냐, 왜 필요 없이 많이 하냐 이야기들을 많이 하긴 했는데,

한 거랑 안 한 거랑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제 또 시작했으면 쭉 가야지 하다가 멈추면 퇴행이 되는 것 같고.…”

“아이를 교육을 시켜주지 않고, 치료를 안 하면 사실 경제적인 문제는 전혀 없어요. 근데 이 아이의 문제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놓을 수가 없잖아요.”

○ 또한 조사에 참여한 보호자들은 경계선지능의 특성상 타 질환과는 달리 ‘완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시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있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엄청 받아서 아이한테 완전 어릴 때 투자를 많이 했어요…이거를 언제까지 해줘야 되느냐 이게 지금 가장 고민인 것 같아요. 사교육 해주면 어느 정도 따라가거나 아니면 조금 뭐 좀 느리거나 이렇게 하는데, 안 해주면 왠지 못 따라갈 것 같은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도대체 언제까지 한 달에 몇 백만 원씩 써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 정보 획득을 위한 경로 확대

○ 면접조사에 참여한 다수의 보호자들은 경계선지능과 관련한 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경계선지능에 대한 정보의 부족은 경계선지능 조기 발견 및 대응 실패, 진학의 어려움, 지원제도 활용의 어려움 등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

○ 경계선지능이라는 개념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인해 경계선지능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진단 시기가 늦어지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모든 게 조기 치료인 것 같아요. 저는 아이 키우면서 느낀 게 초기에 치료가 딱딱 들어가서 애가 이렇게 성장하는 걸 봤기 때문에…(중략)…어떤 분은 발견하게 된 계기가 직장에서 자꾸 상사가 ‘너는 왜 이게 안 되니’ 그러니까 본인도 너무 힘든 거죠. 여러 번 듣다가 보니까 본인이 너무 답답해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본인이 경계선지능이었던 거예요.”

○ 또한 경계선지능 자녀들이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정보 수집이 어렵다는 의견이 존재하고 있으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학교별 특성이나 진학 상담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저도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를 갔는데 가기 전에 학교마다 전화해 봤어요. 다른 엄마가 말한 것처럼 일본 고등학교를 보내서 가만히 앉아있다 올까, 아니면 제주도 학교를 보낼까 고민을 했어요. 많이 고민해서 제주도 학교를 보내긴 했는데 학교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저는 학교마다 일일이 다 전화해 봤거든요."

"전화로 안 돼서 네 군데 학교를 다 뛰었어요. 상담 일정 잡고 거기 들어가고…일반고를 보낼 것인가, 특수고를 보낼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제 다가오면 전화로 문의하기도 했는데, 전화로 너무 답답해서 실제 학교 상황이나 분위기를 읽고 싶어서 이제 열일 제치고 찾아가기도 하고…"

○ 경계선지능인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정보 획득 경로가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친분이나 커뮤니티 카페 등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관련된 정보의 획득이 가능한 실정임

"센터에서 이제 정보 주시고. 그리고 행정 보시는 분하고 좀 친하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이제 정보도 얻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지. 제가 만약에 그분하고 친분이 없었다면 저 혼자 생으로 뭐 알아보고 그랬을텐데. 근데 사실 주민센터에 물어봐도 장애인 관련 진짜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이 저한테 오히려 '아니 그런 게 있어요' 이러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발달장애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서 엄청 많은 정보를 얻죠. 보통 이 정보라는 건 선배 엄마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많아요. 거기에 가입을 하면 먼저 경험한 엄마들이 자기 본인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나 정보 이런 거를 많이 주시거든요. 그리고 단톡 통해서 이제 그런 거 있으면 다 링크 걸어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제주도에는 따로 이렇게 전문적으로 제공해주는 데가 없잖아요."

□ 사회적 인식 및 시스템 개선 필요

○ 면접조사에 참여한 보호자들은 경계선지능 자녀들이 전 생애를 놓고 봤을 때, 학령기의 경우에는 유치원이나 학교 같은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는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어 성인 이후의 삶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임

○ 특히 남성 경계선지능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역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경계선지능에 대한 인식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서 많은 보호자들이 공감하고 있음

"가장 걱정인 게 솔직히 해서 학교 테두리에 있을 때는 괜찮아요. 우리가 한 8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4분의 3은 학교 테두리 밖에 있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걱정되었던 건 이제 군 문제에요. 왜냐하면 경계선지능인 애들이 아무래도 사회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애들은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서 '멀쩡한 애가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장애가 있으면 '이런 걸 조금 이해해 주세요' 이런 말이라도 하는데, 이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가장 문제 되는 건 군대. 저희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상대방이 '애가 괜찮은데 왜요?'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뭔가 증명할 뭐가 없는 거예요."

□ 경계선지능인 맞춤형 프로그램 및 지원시설 필요

○ 실제 우리 사회에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지원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스스로가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보호자 대상 교육의 필요성 또한 높은 수준임

"저는 부모가 경계선지능 아이들이 부족한 게 있으면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우리 아이들은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알려주지 않아, 부모도 알려주지 않아, 본인도 생각 못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라도 알려줘야 되잖아요."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서 해주고, 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학부모들한테도 교육시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 경계선지능인의 경우 사회성이나 관계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많은 보호자들이 이들의 특성에 맞춰 사회성이나 관계성을 형성하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전문 조직을 활용하여 유관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음

"지원센터가 생기면 이제 거기 학생들이랑 매칭해 가지고 수업 이런 거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 우리 애가 막 잘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그냥 앉아서 선생님 얘기 듣고, 비슷한 애들끼리 매칭해서 같이 수업하는 것만 해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통합 허브 같은 역할을 하는 센터가 있어서 교육청이랑 이렇게 연계되고 하면 잠재되어 있는 아이들도 더 많이 진단할 수 있고, 또 개선이 되게끔 할 수도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 진단에 있어서는 심리적 장벽을 가진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병원보다는 상대적으로 심리적 장벽이 낮은 전문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선생님이 '검사를 좀 받아보세요' 이러면 병원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병원이라는 곳은 엄청 부담스러운 곳이잖아요. 사실 '내 아이가 문제가 있나? 아닐 거야' 이래서 병원에 가기 꺼려 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센터 같은 데서 가볍게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물론 비용은 들겠지만. 그렇게 해주면 우리 애한테 선생님이 조금 검사가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한번 가볼까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문턱을 넘기가 참 어려우니까."

"근데 사실 저는 부모의 입장에서 병원보다는 센터 같은 데서 좀 더 가볍게 검사를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아이에 대해서 '얘가 발달이 좀 느리구나' 이걸 알고 있으니까 한번 받아보세요 했을 때 센터 같은 데서는 가볍게 '네 알겠어요'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병원에 가서 풀 배터리를 몇 백만 원을 주고 이렇게 받으라고 하면 그 받는 부모가 몇 명 안 되지 않을까"

2-2. 경계선지능인 당사자

2-2-1. 일상생활의 어려움

○ 면접조사에 참여한 경계선지능인 당사자들 다수는 낮은 이해력과 집중력 등으로 인해 학업의 어려움을 갖고 있고, 이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나타남

○ 더불어 참여자들은 교우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교생활과 공부 자체에 대한 낮은 동기와 부정적 감정이 생겨서 등교를 거부하거나 우울감 등으로 나타나는 경험을 했었다고 호소함

□ 학업의 어려움

○ 다수의 경계선지능인 당사자들은 학업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상급학교에 다니고 있을수록 더욱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이러한 경향은 응용력이 떨어지는 경계선지능인들의 특성과 일치하는 부분으로서, 실제 당사자들은 이해력, 집중력이 떨어져서 공부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음

"일단 모든 수업을 하면서 약간 좀 이해가, 거의 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는 이제 학교생활을 하면서 이제 막 고등학교 진학도 하고 하니까 학습이 많이 어려워요. 난이도도 점점 올라가니까…"

"공부를 혼자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오래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서 30분, 15분 막 이렇게 조금 조금만 하고 있고, 일상생활을 할 때 되게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고 너무너무 산만해서 이렇게 수업 진도 따라가기가 되게 어렵고…"

"적용시키는 문제가 좀 많이 틀려요. 수학도 기초는 쉬운데 제가 응용에서는 다 틀리거든요."

○ 일부 사례의 경우에는 낮은 학업 성취도로 인해 학업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아예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중학교 때부터 올라가니까 난이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워지니까 점점 못 따라가고 집중도 떨어지고 그냥 다 내려놓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못 따라가' 해가지고 학업 공부로는 그냥 아예 다 그만하기로 했거든요."

□ 교우 관계의 어려움

○ 다수의 대상자들이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모되는 경계선지능인의 특성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음

○ 교우 관계에 대한 어려움은 학교생활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학교를 다니는 것에 대해 등교 거부 등의 안 좋은 감정으로 나타내게 되는 특성을 보임

"(친구들이랑) 서서히 친해졌어요. 같은 반이 되니까. 그래서 작년까지는 친구가 많았는데 반 배정을 하면서 어울리기 싫은 친구하고만 같은 반이 됐어요."

"저는 반에 좀 어울리는 친구가 없고요…친구들이 없어서 학교생활이 좀 재미가 없어요."

○ 다만 일부 사례에서는 동성 학생들만 다니는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면서 교우 관계가 훨씬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나타나기도 함

○ 이는 교우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인들이 사춘기에 일반적인 친구 관계 뿐 아니라 이성과의 관계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러한 감정들이 오히려 교우 관계를 맺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친구 관계는 아직도 어려운데, 이제는 여자만 다니는 학교로 가니까 중학교 때보다는 훨씬 좋아진 것 같고…"

□ 감정 관리의 어려움

○ 실제 분석된 사례들을 보면, 당사자들은 답답함이나 무기력, 부정적인 감정 등을 경험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계선지능인의 경우 복잡한 정서적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정서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낮은 성취로 인해 반복된 좌절과 무기력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낮은 자존감, 우울감, 부정적 감정 등을 경험하게 됨

○ 또한 이러한 감정들은 폭력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하는데, 이는 경계선지능인들이 감정적인 행동을 표출하여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호자들의 서술과도 일치하고 있음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으로 일상생활에서 문제였던 건 제가 너무 저 자신이 너무 답답해서 맨날 맨날 싸우거든요. 저 자신과. 계속 그냥 '때려치고 싶다', '내 몸을 어디 뭐 망가뜨릴까?' 이러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자기가 긍정적인 것을 잘 못 찾은 것 같아요."

"가끔씩 막 그런 게 막 찾아와요.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올 때마다 저는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 자신이 어떻게 스스로 해결을 못해서 계속 모든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는데도, 그 도움들이 나한테는 원하는 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원하는 답을 좀 찾고

싶은데, 나는 스스로 그런 원하는 답을 못 찾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서 머리가 막 부글부글 막 타오르고, 그래서 잠도 잘 안 오고 막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2-2-2. 도움을 받은 경험

○ 경계선지능인 당사자들은 생애주기 과업에 따른 학업의 어려움은 학원이나 과외 등을 통해 해소하고 있고, 이를 통해 학업 성취 결과에 따라 긍정적 경험을 나타냄

○ 또래 등의 대인관계나 우울감 등의 심리적 어려움 역시 상담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성장 과정에 따라 필요한 다양한 전문적 도움은 낮은 정보력 등으로 인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큰 것으로 파악됨

□ 학원이나 과외 등으로 학업의 어려움 해소

○ 다수의 사례들이 학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학원이나 과외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를 통해 학업적인 부분에서 스스로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고 있음

"제가 했던 경험 중에서는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했던 거? 그래서 저는 그 공부를 통해서 조금 점수가 좀 올라가긴 했었어요. 모르는 걸 바로바로 물어보니까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들도 있고 해서 오히려 좀 점수가 올랐던 것 같아요."

"일대일 과외나 학원 가는 그런 거요. 그런 걸 하면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상담 등을 통해 낮은 자존감, 우울감 등 부정적 감정 해결

○ 조사에 참여한 경계선지능인 당사자들의 경우에는 성장하면서 또래 집단보다 정신적, 사회적 발달이 늦어지고 차이가 벌어지는 경향이 있음. 이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우울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담 등 타인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선생님들한테 계속 도움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악기 연주도 해보고, 나 혼자 노래도 불러보고, 아니면 나가서 운동을 하든지, 땀을 흘린 다음에 시원하게 샤워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취미생활이라든지 그런 걸 해가지고 조금 풀긴 풀었었어요."

○ 다만 일부 사례의 경우에는 기존보다 전문적인 심리상담 등과 관련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를 획득하기 어렵거나, 심리적인 진입장벽이 높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함

"전문 심리사한테 상담을 받아보고는 싶은데 아직 받아본 적은 없어요. 찾지 못해서. 아니면 내가 자세하게 부모님들이나 뭐 얘기를 못해서, 아마 도움을 잘 못 받았던 것 같아요."

2-2-3. 정책 수요

○ 경계선지능인 당사자들은 일상생활에서 겪는 부정적 감정이 심리 상담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해결했던 경험을 통해 상담 프로그램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함
○ 또한 정보력이 취약한 경계선지능인들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보들을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문 지원시설과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요구함

□ 상담 프로그램 확대

○ 면접조사에 참여한 경계선지능인 당사자들 대다수는 우울감이나 불안정한 심리, 답답한 감정 등을 제어하기 위해 심리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금보다 심리 상담에 대한 확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음
○ 특히 실제 심리 상담을 경험해 본 당사자들은 이를 통해 본인 스스로가 개선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은 부정적인 감정을 자주 경험하는 경계선지능인의 발달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저는 진로 상담과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심리 상담이요. 친구가 이제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해서 심리 상담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거 받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떠냐고. 확실히 좋대요. 확실히 도움 되는 건 진짜 도움이 되고. 그리고 약으로도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조금씩은 나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심리 상담을 2016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지금 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많은 도움이 돼가지고…(중략)… 저는 중학교, 초등학교 때보다 훨씬 많이 좋아졌어요."

□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마련

○ 단순히 경계선지능인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시설이라기보다는 이들이 거리감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욕구가 존재하고 있음

"사람들이 이렇게 거리감 느끼지 않도록 조금 편히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좀 자유롭게, 그냥 오로지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별도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평소에는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신감을 조금 좀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뭔가를 배우려고 할 때. 진로에 관해서 뭔가를 배우려고 할 때 좀 어떻게 지원 같은 것을 해주면 좋겠어요."

"발음 교정. 어렸을 때 저 말 아예 못했다고 듣긴 했는데, (지금은) 아예 말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비스무리하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거나 아니면 발음이 잘 안될 때 딱딱 교정시켜줄 수 있는 것들요."

2-3. 교사

2-3-1. 교실 내 경계선지능인 진단 및 선별

○ 조사에 참여한 교사들의 경우에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초기 판단의 근거는 학습적인 수행능력과 학교생활에서 여러 경험적 평가를 통해 진단하는 것으로 확인됨

○ 또한 보호자들의 생업 등 여러 바쁜 상황을 고려할 때 읍면 지역이 동 지역보다 경계선지능 의심 학생이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에서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사례도 언급함

□ 학습 수행 경험을 통한 경계선지능 여부 진단

○ 면접조사에 참여한 교사들의 경우에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학생들을 관찰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학습적인 차원에서 아이들을 판단하고, 경험적으로 경계선지능 여부를 진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교사들은 다 학습적인 차원에서 많이 아이를 관찰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그 수업시간 안에 하나라도 배움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걸 목적으로 관찰하기 때문에…(중략)… 저희가 애들을 보는 관점은 학습적인 차원이 가장 큰 것 같고요."

"3학년 때 읽기, 쓰기, 셈하기 시험을 보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진단평가로 읽기, 쓰기, 셈하기 시험을 보는데, 이게 4학년, 5학년, 6학년이 돼서도 3학년 수준의 읽기, 쓰기, 셈하기를 통과를 못했다는 거는, 저는 경계선지능으로 거의 한 80%, 90% 의심을 해봐야 될 상황이라고 봐요."

□ 읍면 지역이 동 지역보다 더 많은 경계선지능 의심 학생 예측

○ 또한 동 지역보다는 읍면 지역 학교에서 더 많은 경계선지능 의심 학생들을 만나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읍면 지역이 동 지역에 비해 보호자의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읍면 지역에서 가르쳤을 때도 있는데 일단은 학생 비율상으로 봤을 때 한 반에 정말 비슷하게 한 두 명이 있거든요. 근데 동 지역에서도 한 두 명, 읍면 지역에서도 한 두 명인데 읍면 지역이 학급당 학생 수가 훨씬 적은 걸 생각하면 비율상으로는 읍면 지역이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읍면 지역은)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생업에 더 종사를 하시다 보니까, 아이들 케어가 잘 안 되시고,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더라도 바쁘시다는 이유로 결국은 다 치료를 못 받고 이제 지원금을 반납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2-3-2. 학교생활의 어려움

○ 면접조사에 참여한 교사들이 생각하는 경계선지능 학생이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친구들과 관계 형성에 있어서 문제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 교사들이 생각하는 경계선지능인들이 학교생활에서 경험하는 또 하나의 어려움은 '낮은 학업 성취도'라고 언급함

□ 친구 관계 형성의 어려움

○ 조사에 참여한 교사들은 경계선지능인들의 경우 또래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 안에서 빠른 상황 판단 및 대처가 어렵고, 문맥에 맞는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며, 이로 인해 또래들 사이에서 위축되거나 낮은 자존감을 종종 나타낸다고 언급함

"좀 집중이 어렵고, 또 친구들하고의 상호작용에서 빨리빨리 대처를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 학습이나 그런 자기 의견을 말할 때 위축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수업 현장에서 봤을 때 뒤에서 보고 도와주기도 했는데 좀 안쓰러운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게임 같은 걸 해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냥 입에 '미안해, 미안해' 이런 말을 달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어요. 아무래도 학습이 느리다보니까, 친구와의 또래 관계에서도 위축되는 면이 보이는 것 같아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대인관계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라고 해봐야 좀 비슷한 애들, 그래서 그 친구들이 특수학급에 있는 애들이랑 친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경계선 애들은 특수학급 애들이 더 기능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걔네들하고 있으면 좀 편한데, 이제 일반 아이들하고 같이 할 때는 놀림도 많이 받고 그리고 이렇게 이용도 많이 당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 낮은 학업 성취도

○ 조사에 참여한 교사들은 낮은 지능으로 인해 학업 성취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경계선지능인이 경험하는 가장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경계선지능 학생들의 경우 종종 수업시간을 회피하는 등의 행동 패턴을 보인다고 언급함

"학습 같은 거 할 때 보면 공부 시간을 굉장히 싫어해요. 일단 애들이 초등학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갈 수 있지만 중학교 수준이 되면 국어나 수학이든 영어 이런 공부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업시간마다 맨날 딴 짓 하고 아니면 이제 난 공부해도 안 된다고…(중략)… 애들이 공부에 대한 의욕도 없고 그래서 학교 와서도 그냥 자거나, 아니면 다른 공간에

서 막 일을 하려고 하고, 학교도 잘 안 오고…”

○ 그렇기 때문에 경계선지능인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특수아동 진단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향후 다시 일반학급으로 이동했을 때 재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함

“특수학급 같은 경우는 현장체험학습 같은 활동적인 걸 많이 하기도 하고, 애들이 배우는 도구도 되게 좀 재미있는 것도 많이 가지고 보니까, (경계선지능 학생이) 특수반에 온 경우도 있었어요.”

“(특수교육 대상에서) 취소되어서 다시 일반 학급으로 가고, 학습 부진아 이런 경우로 지내면서 학습 보충교육 받고 했는데, 그 애들이 더 힘든 게 뭐냐 하면 보충을 해야 하거든요. 수업이 3시에 끝나는데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보충을 해. 안 그래도 공부하기 싫은 아이인데 아침 8시부터 5시까지 공부를 시켜버리니까 애들이 공부에 대해서 진짜 학을 떼고, 학교 가라고 하면 가출도 하고…”

2-3-3. 학부모의 협조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 면접조사에 참여한 교사들이 경험적으로 경계선지능임을 인지하고 학부모에게 이에 대한 대응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소극적인 태도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교사로서 더 이상의 도움을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함

○ 교사들은 학생들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경험적으로 경계선지능 의심 학생들을 도출하고 학부모에게 경계선지능이 의심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부모의 성향에 따라 매우 크게 거부감을 보이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선지능인 진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판단됨

□ 아동의 치료에 소극적인 태도

○ 조사에 참여한 교사들은 학부모의 관심과 치료 프로그램 참여 정도가 향후 경계선지능 아동의 발달 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나, 부모가 아동의 치료에 적극적이지 못한 경우 교사로서의 대응방법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언급함

"부모가 그냥 뭐 그러면 하겠지 이렇게 내버린 집은 그 어려움이 점점 더 드러나는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지금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더라도 치료 받으러 안 가서 다시 되돌아오는 돈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

□ 명확하지 않은 경계선지능에 대한 진단 기준이나 지원 방안

○ 이는 경계선지능 개념이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고, 그 진단 기준이나 지원 방안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경계선지능을 일종의 장애와 같은 개념으로 인지하고 수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으로 보인다고 언급함

"경계선지능이 사실 비정상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비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 아직 자기 아이를 이렇게 부르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도 계시고…"

"경계선지능이라고 검사하기를 권유할 때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얘가 경계선지능 같으니까 검사해 보고 싶어요'가 아니라 '학생이, 그러니까 자녀분이 뭔가 공부에 문제가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되는 어느 분야에 부족해서 될 건지 여러 가지 검사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설득하면 그나마 잘 따라주시고…(중략)…처음부터 '경계선 지능이다, 지능이 정상인지 아닌지 검사해보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면 일단 부모님들은 거부감부터 가지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고…"

○ 경계선지능의 경우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난독, ADHD, 자폐 등)과는 다르게 개념이 많이 알려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서는 명확한 치료방법을 제안하기가 어려워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난독도 말이 나왔지만 난독은 정확히 치료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경계선지능으로 진단받게 되면 무슨 치료 받을지는 솔직히 우리가 그 검사 결과만 보고 단정짓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검사 결과를 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모님들은 알아서 가시지만, 아예 그걸 보고도 판단 못하시는 분들은 병원 가서 더 전문적인 상담을 하라고 권유하는 정도 밖에는 할 수 없어요."

○ 다만 일부 사례에서는 관련된 치료비 예산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학부모가 먼저 적극적인 문의를 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음

"자꾸 사회적으로 경계선지능이라는 말이 퍼지고 있으니까, 어떤 학부모들은 '지원받고 우리 아이를 더 잘 해보고 싶다'라고 반대로 물어보는 분도 있어요."

2-3-4. 정책 수요

○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사회적 인식 수준은 낮지만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부모들이 존재한다는 일부 사례로 미루어 볼 때,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충분한 지원 대책이 마련된다면 초기 진단에 있어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교사들은 경계선지능인들을 유형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또한 생애주기별 지속적 지원을 위해서는 학교 밖에서의 프로그램으로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 또한 제안함

○ 특히 학교에는 일반 학생, 특수학생, 경계선지능인 등 모든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청, 지자체 등 다양한 유관기관을 연계할 수 있는 학교 밖 전문성 있는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함

□ 사회적 인식 개선

○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경계선지능이라는 용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명확하지 않은 기준 등은 교사들이 학교 내에서 경계선지능인을 초기에 경험적으로 발견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경계선지능이라는 것 자체의 정의가 완전히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자체도 지금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혼란 이렇게 완전히 정의되지 않은 것을 부모님들께 알려드리면 부모님들도 분명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우선은 경계선지능에 대한 완벽하진 않지만 우선 부모님들도 이해할 수 있는 정의를 좀 마련을 하고…"

"이 학생이 경계선지능인지, 지적 장애인지, 어떤 그걸 판정하는 것이 먼저잖아요. 그 아이의 수준을 알아야 이제 그 진단을 통해서 그 아이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일단 판별을 위해서는 진단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고…"

□ 조기 발견 및 지원의 중요성

○ 교사들은 초기 발견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부모 대상으로의 인식 확산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경계선지능인 보호자들이 사전에 경계선지능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지 못해 진단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어릴 때부터,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그런 과정에서부터 이 아이들이 선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받고 좀 나아질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도 홍보를 잘 해야 되지 않겠나…"

□ 단계적인 지원 프로세스 필요

○ 조사에 참여한 교사들은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함에 있어서 각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지만, 현재 여건상 개별 맞춤형 지도 프로그램 제공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언급함

"(경계선지능인들은) 일반 교육을 해서는 수업을 잘 따라오기가 힘드니까, 어떤 그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해줘야 되는데, 그 맞춤형 학습도 아이들마다 자기들이 원하는 기호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의 맞춤형 상담이라든가 그런 방법을 많이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보면 아이들마다 공부는 아니지만 각자 다른 하나하나의 관심과 재능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캐치를 해가지고 지원하는 게 좋지 않을까…"

○ 다만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추가적인 프로그램이나 과정을 마련함에 있어서, 인력의 부족, 학부모 또는 다른 학생들의 차별적인 시선 등을 이유로, 학교보다는 학교 밖에서의 추가적인 프로그램 마련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제안함

"주민센터나 아니면 지역에 사회 시설들이나 그런데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중략)… 그리고 사실 학교에서 이 친구를 따로 빼서 뭘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부모님들이 거부를 하세요. 티 나는 거 싫다고."

○ 또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치료 및 지원이 전 생애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촉하는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함도 강조함

"보통 치료실에 가면 40분 수업하고 10분 정도 부모님하고도 얘기를 엄청해요. 근데 부모님은 그 10분 상담하고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주중에 또 적용을 하잖아요. 관심 있는 부모님께서는 그걸 또 치료진, 선생님, 부모님, 아이가 다 어떻게 연합이 돼가지고 같이 아이를 끌고 가잖아요."

□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을 가진 조직을 통한 학교-시설 간 연계 강화

○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개념 정의나 지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특수아동과 달리 별도의 지원이 어렵고, 일반학교의 특성상 교사 1인당 담당 학생 수가 특수학교에 비해 많아 교사가 대상자에게 도움을 주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함

"특수학급에 오게 되면 선생님이 아이 엄마랑 상담도 많이 하고 해서 이제 그런 일을 잘 안 당하는데, 일반학급에 있을 경우에는 일반 학교 학생들도 많고 하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일일이 다 이렇게 케어를 못하는 거죠."

○ 현재 제주지역에는 특수교육 대상자나 경계선지능인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역 내 인적 인프라를 확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사실 제주도의 치료 지원이 언어 치료에 많이 쏠려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치료사 비중을 봤을 때 언어치료사가 대부분이고, 치료실 내에서도 보면 재활심리나 심리행동 선생님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인력들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고…"

"언어치료학과가 지금 제주국제대에 있긴 한데, 이게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제주대학교에 특수교육과 만들어달라고 하고 있는데…어쨌든 제주도에 경계선지능인이나 특수 장애학생이 좀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관련 학과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 일반 학생과 특수학생, 경계선지능인 등 다양한 아이들이 모여 있는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대응에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그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문적 조직을 마련하고, 전문 조직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청, 지자체 등 다양한 유관기관을 연계함으로써, 효과적인 지원체계 마련과 동시에 정보 전달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센터 같은 곳에서 모든 치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접근이 힘들어서 직접 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교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담임 선생님과의 여러 가지 협력 체계라든지 이런 것도 구축해서 지속적인 지원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학교 말고도 경계선지능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더 접근성도 좋고, 남들 눈치 안 보고, 자기네 반 아이 눈치 안 보고 신청하러 갈 수 있고, 치료 받으러 갈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 잘 협업해서 이게 일관되게 가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학부모 연수 같은 것도 서로 돌아가면서 하고, 인식 개선 같은 것도 하면 점점 더 나아질 수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2-4. 현장 전문가

2-4-1. 경계선지능인 진단 현황

○ 면접조사에 참여한 현장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경계선지능인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음

○ 경계선지능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재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계선지능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진단 도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능지수만으로 판별하는 현재의 기준은 명확한 선별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호소함

○ 최근 경계선지능인 개념에 대한 인식 확산이 결과적으로 경계선지능 진단을 유도하고 있는 결과로 예측해 볼 때 대상자 특성을 반영한 선별진단 도구 개발이 요구됨

□ 경계선지능인 진단 증가 추세

○ 조사에 참여한 현장 전문가들은 과거에 비해 경계선지능인 진단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음

○ 현장의 특성 상 사회성 부족이나 학습 부진 등을 이유로 센터나 병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실제 검사 결과 또한 대부분 경계선지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과거에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이나 선별 실익이 없어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계선지능인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였다고 함. 그러나 최근 경계선지능인 개념 인식 확대에 따라 경계선지능인으로 진단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결과로 예측된다고 언급함

"학교에서 장애 진단을 받지 않고 의뢰가 되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손을 잡고 오는 친구들의 거의 대다수가 정말 경계선지능이라고 의심을 해도 될 만큼 많은 것 같아요…(중략)…주변에 선생님들이랑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봤더니 선생님들 과반수가 70~80%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의뢰해서 병원에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어떤 조절 문제, 사회성 문제를 동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계선지능이 꽤 있다고 보여요. 정확한 수치는 되게 애매한 것 같은데, 굳이 말하자면 10명이라고 했으면 한 7명 정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기회 감소로 경계선지능인의 지적 능력 하락 경험

○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단절된 인간 관계, 학습 부족 등으로 인해 경계선지능인 진단이 늘어나거나, 경계선지능인들이 특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수준으로 능력이 떨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검사 대상들의 지적 능력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언급함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부터 이런 아이들은 자기주도학습 자체가 전혀 안 되니까. 경계성지능 학생들이 이제 거의 특수 교육을 받는 수준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 초기 진단을 위한 진단도구 개발 필요

○ 다만 현재 경계선지능인 진단 도구는 지능지수만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선지능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언급에 대해 경계하는 듯한 태도를 보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진단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경계선지능인의 경우에는 낮은 지능 이외에 우울증, ADHD 등 다른 질병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질병의 치료 경과에 따라서 지능검사 결과가 변화하기 때문에 지능지수 기준만으로 경계선지능인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회의적인 의견

을 나타내고 있음

"경계선지능은 지능 검사로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이 지능 검사에는 ADHD나 우울증 같은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지능 자체가 온전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중략)…우울이나 ADHD가 좀 회복되면 조금 지능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주의력 치료를 받다 보면 좀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경계선지능 여부를) 진단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정말로 우울증이 없는 사람, ADHD가 없는 사람, 성격적 문제가 없는 사람 중에서 지능이 경계선에 해당하는 사람이 정말 순수하게 경계선지능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거의 그럴 수가 없어요."

2-4-2. 현장에서 경험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어려움

○ 경계선지능인은 정상지능을 가진 사람과 장애판정지능을 가진 사람 사이의 애매한 기준으로 생애주기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학령기에는 학업의 문제, 성인기에는 취업의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됨

○ 또한 문제 해결과 의사소통 능력 등이 부족하여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폭력 등의 범죄 현장에 연루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언급됨

□ 정상지능과 장애판정지능 기준 사이의 끼인 애매한 집단

○ 조사에 참여한 현장 전문가들이 업무상 경험하는 경계선지능인들이 처한 문제점은 '정상지능과 장애판정기능 기준 사이의 끼인 집단'이라는 것임

○ 즉, 정상지능을 가진 사람들과 경쟁하기에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장애등급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직장생활이나 학교생활 등에 문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

"지능 검사하면 장애는 안 나오고, 근데 사회적인 기능 같은 게 떨어져서 직장생활도 할 수 없고. 그리고 계속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분들 중에서 경계선 지능이 꽤 많아요."

"오히려 정말 중증인 애들은 예쁨을 받아요. 자폐 애들은 이제 친구들이 그냥 그걸 인정해 주는데,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은 되게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계속 또래 관계 문제가 일어나고, 또 이제 선생님하고도 갈등이 있고…"

"어떤 한 가지 영역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디를 어떤 바우처로 해보고 이렇게 연결하기가…(중략)…경계선지능은 정말 이제 연계할 수 있는 자원 지역사회 서비스가 제한돼 있다라는 거…"

□ 생애주기별로 학업 수행과 진로·취업의 어려움 경험

○ 조사에 참여한 현장 전문가들은 생애주기별로 경계선지능인을 살펴보면, 학령기에서는 학습과 관련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성인기의 경우에는 취업과 관련하여 문제를 마주하는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6~8세 아이들 중에 유독 융통성 질문에 약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또 주의 유지력, 순차처리,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의를 집중하고, 단계로 넘어가고, 다시 인출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학습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갓 학교를 입학한 저학년 친구들을 보면 학교에 대해서 적응하기는 하는데 완전히 적응하지 못해서 학습을 완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그리고 언어 발달도 전반적으로 느리고, 발음도 좋지 않고…"

"성인인 경우에는 취업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해력이나 공부로 오는 게 아니라 취업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적응 문제를 동반하고 있고, 사회성이 떨어지고, 문제 해결력이 떨어지고. 이제 지능 검사를 하다 보면 실제로 평균 하위인 경우가 좀 많이 있죠."

□ 범죄와 연루되는 문제 발생

○ 또한 경계선지능인들이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나 의사소통이 부족하여 범죄와 연관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조사에 참여한 교사들이 경험한 내용에 대한 서술과 일관된 경향을 보이고 있음

"경계선지능인들이 자주 오시는데 성적인 문제, 이제 잦은 성폭력을 경험한다거나, 다른 사

람한테 이용 당해서 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착취당했다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좀 많이 오시는데…”

“성폭력 피해자도 피해자지만, 오히려 반대로 가해자가 돼서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2-4-3. 정책 수요

○ 현장 전문가들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초기 발견과 대응을 위해서는 현재 지능지수 위주의 진단 도구를 언어와 의사소통을 매개로 사회성 개선과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경계선지능인의 특성을 고려한 다면적 진단체계로의 개선을 요구함

○ 또한 생애주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경계선지능인 당사자와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함

□ 진단체계 개선 필요

○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명확한 구분 기준이나 실익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경계선지능인을 진단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 이러한 서술은 명확하지 않은 진단 기준이 경계선지능인을 초기에 경험적으로 발견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면접조사에 참여한 교사들의 서술과 일치하고 있음

“지능만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설명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 정말로 IQ가 80인데 IQ 65만큼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중략)…불안과 긴장이 높으면 아무래도 지능이 80인데 정말 60도 안 되는 아이들보다 못하는 적응 수준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그래서 저는 경계선지능이라는 용어 정의부터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지니까, ‘어떻게 단순하게 특성을 말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경계선지능을 지능지수로만 보면 사회성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려면 다른 것도 같이 봐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평가 도구나 그런 것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되고…”

○ 또한 경계선지능의 특성상 초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는 것이 예후에 있어서 매우 큰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조기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하도록 구조화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

"경계선지능이라고 하는 게 학령기에 들어서, 보통 지능 검사를 그때 하기 때문에 그때 걸러지는 거지. 사실은 그 문제는 그 전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보여져요. 경계선지능이라고 하는 게 지능 검사를 통해서 걸러지기 때문에 그 시기를 조금 더 당기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조기에 개입해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예방적인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조기에 조금 선별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기능들을 센터에서 종합적으로 지능 검사나 언어에 대한 검사, 아니면 사회성에 관련된 문제 행동에 대한 검사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 단계적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경계선지능인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이 하나의 연결고리로 연결되어 복합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함. 결국 언어 또는 의사소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다양한 문제들의 시발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언어적 해결을 통해 '수단'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사회성 개선 등이 가능할 것으로 서술하고 있음

"학습을 시켜보려고 하면 결국 방법은 사실은 언어적인 방법일 수밖에는 없는데, 이 친구들이 언어 이해 능력이 떨어지면 하기가 어려워요. 지능적인 부분의 어떤 접근에 있어서 언어적인 기본 이해력을 갖출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학교에 갔을 때 아이가 학교생활을 잘하고 학교에 가는 것 자체를 괜찮게 느끼려면 학교라는 게 또래 관계도 있긴 하지만 결국엔 학습이라는 걸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사실은 이 아이가 읽기나 이런 것들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아이가 학교에 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 또한 이를 토대로 전반적인 생애주기에 따라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발달 과업의 달성이 가능하도록 구조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

"발달 과업에 적합한, 그러니까 학령기 아동한테 지원돼야 되는 거, 청년기, 나아가서 장년

기에 지원되는 거로 좀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중략)…학령기 아동에 있어서는 학교생활을 잘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청년이나 장년으로 넘어가야 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과업들, 결혼도 해야 되고, 직장도 구해야 되고, 아기도 키워야 되고, 이런 과업들을 잘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 전문조직을 활용한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필요

○ 조사에 참여한 현장 전문가들은 경계선지능인들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해 전문조직(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함

○ 경계선지능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센터의 설립을 통해 당사자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호자, 교사, 종사자 등 경계선지능인과 관계되어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종합적인 지원을 희망하고 있음

○ 또한 이를 위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음

"학령기, 아동청소년기, 청장년기 이렇게 생애주기에 맞춰서 뭔가를 지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런 역할들에 대한 배분을 할 수 있는 센터가 있으면 너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원센터 같은 게 있다고 하면 보호자들의 인식 자체가 '내 아이가 지적 장애는 아닌데 경계선일 수 있겠구나'라는 짐작을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생애주기별 이런 교육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지원을 받게 되면 부모 인식 자체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센터가 생기면 좋을 것 같은데) 제일 먼저 경계선지능인들의 실태나 욕구 파악이 제일 먼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경계선지능인만 아니라 양육자, 교사, 그리고 저희 같은 이런 종사자들의 욕구 파악도 센터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3. 요약 및 시사점

○ 본 연구에 따른 면접조사는 경계선지능인의 특성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2024년 6월 동안 경계선지능인 당사자, 보호자, 현장 전문가, 교사를 대상으로 집단조사를 우선 원칙으로 총 11회에 거쳐 진행함

○ 대상자 그룹별 조사결과를 토대로 주요 질문 내용과 정책 요구를 다음 〈표 Ⅳ-6〉과 같이 요약 제시하였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세부적으로는 첫째, 경계선지능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선별검사와 진단 체계를 마련하고, 학교 안팎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이 고려되어야 함. 둘째, 생애주기별 경계선지능인이 일상생활과 적응 과정에서 겪는 직면과제를 극복하고 사회적 자립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체계 마련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함

〈표 Ⅳ-6〉 조사결과 근거의 주요 내용 및 요구에 따른 시사점 도출

구분	보호자	당사자	교사	현장 전문가
최초 진단 경험	· 주변의 권유 · ADHD 등 별도의 치료 과정		· 학습 수행 과정에서 발견	· 상담 및 검사 과정
어려움 경험	· 자녀의 관계 형성 및 유지 어려움 · 자녀의 감정적 행동으로 돌봄 어려움 · 자녀로 인해 가족이 받는 정신적 상처 · 상담/치료 등 프로그램 이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 프로그램 다양성의 한계	· 학업 수행 어려움 · 교우 관계 어려움 · 감정 관리 어려움	· 친구 관계 형성의 어려움 · 낮은 학업 성취도 · 학부모의 비협조적인 의사소통 · 학부모의 자녀 치료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 불명확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진단 기준	· 경계선지능인 판정에 불명확성 (정상지능과 장애판정지능 사이 끼인 집단) · 생애주기별 학업 수행, 진로·취업의 어려움 · 일부 폭력 등 범죄와 연루되는 문제 발생
치료 및 서비스 등 이용 경험	· 언어, 인지, 사회성, 신체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 경험	· 학원이나 과외 등으로 학업 도움 · 상담 등을 통해 낮은 자존감, 우울감 등 부정적 감정 해결에 도움		
정책 수요	· 경제적 지원 · 정보 획득 경로 확대 · 사회적 인식 개선 · 지원 시스템 개선 · 경계선지능인 맞춤형 지원시설 설치	· 상담 프로그램 확대 ·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시설 ·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프로그램	· 사회적 인식 개선 · 조기 발견 및 지원 · 단계적 지원 프로세스 구축 · 전문기관 연계의 학교·시설 간 지원 체계 구축	· 진단체계 개선 · 단계적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전문기관 연계로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 서비스 지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

1. 경계선지능인 맞춤형 진단을 위한 선별검사 및 진단 체계 마련 및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의 기초학력 지원(학습연구년 교사 학교 방문, 기초학력센터 등 전문적 지원) 및 학교 밖 외부 전문기관 연계 지원 등 서비스 접근성 고려
2. 생애주기에 따른 지속적인 지원체계 마련 및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

V. 정책 제언

1. 경계선지능인 지원정책 기본방향

○ 최근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고 그에 따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사회적 인식 개선과 경계선지능인 맞춤형 선별검사, 치료 및 지원 등에 대한 지역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차원의 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임

○ 경계선지능인은 '경계선'이라는 용어가 의미하듯 특별한 치료법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신경발달 장애와 같은 기저 질환과 함께 치료적 접근이 필요함. 즉 다른 질환의 전반적인 진단에 따라 치료 계획이 결정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계선지능인별 다양한 조건에서 사용되는 전문적 중재 필요성이 고려되어야 함

○ 특히, 생애주기별 경계선지능인 지원 정책을 위해서는 관련 지원센터 및 지역별 연계 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 필요함. 이를 통해 지역사회 및 교육 기술 구축 프로그램, 교육 및 직업 편의 시설, 직업(특정 직무 기술) 훈련, 인지 행동 치료(CBT), 가족 교육, 사례 관리, 성인을 위한 주간 프로그램 등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이 매우 중요함

○ 따라서 경계선지능인 지원 필요성 대두에 따른 제주지역의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적 기본방향은 첫째, 맞춤형 선별 진단체계 마련 및 서비스 접근성 개선, 둘째, 생애주기별 정책적 지원체계 마련 및 사회적 인식 개선으로 설정함

□ 기본방향 1 : 맞춤형 선별 진단체계 마련 및 서비스 접근성 개선

○ 생애주기별 경계선지능인 대상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선별 및 진단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함. 정확한 진단을 근거로 대상자별 특성과 요구를 이해하고 평생교육 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들이 각 생애 단계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이러한 지원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을 돕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제공하며, 이들이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임

○ 또한 도심 지역과 달리 도농복합 지역의 서비스 접근성은 교통의 불편, 서비스 제공기관의 밀집도 등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 어려운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촘촘한 접근 전략이 요구됨. 이러한 이유로 제주지역 경계선지능인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리적 특성, 지역사회의 자원 연계, 디지털 원격 서비스 등의 기반을 확충하고 이동 서비스를 위한 교통 지원, 인식 개선, 프로그램 개발 등의 필요한 지원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

□ 기본방향 2 : 생애주기별 정책적 지원체계 마련 및 사회적 인식 개선

○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생애주기에 따른 지속적인 지원체계는 이들이 각 생애 단계에서 직면하는 도전과 문제를 극복하고 자립하며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이를 통해 경계선지능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전체의 통합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예를 들면 유아기 및 아동기에는 발달 지원과 교육 지원이 중요하며, 청소년기에는 자아 정체성 형성 지원 및 직업 탐색과 진로 교육이 고려되어야 함. 학령기 이후의 성인기에는 직업 및 사회적 자립 지원과 사회적 관계 및 생활 관리 지원 등으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보다는 경미한 지적 기능 저하를 가지고 있기에 장애에 속하지는 않음. 하지만 일상생활과 학습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당사자 자신, 가족, 교육관계자, 사회복지사 등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에 경계선지능인의 능력과 잠재력이 과소평가가 되거나 배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 따라서 공공인식 캠페인, 경계선지능인과 관련 있는 학교, 사회복지사, 공무원, 양육자, 기업체 및 단체 등에 대한 경계선지능인의 특성에 대한 인식 확산 교육 및 홍보 활동이 필요함

2. 경계선지능인 지원방안

2-1. 경계선지능인 맞춤형 정책 지원을 위한 선별 및 진단체계 마련

□ 경계선지능인의 다양한 양상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진단 도구 개발

○ 본 연구의 선행연구와 면접조사 결과, 경계선지능인의 특성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

어 경계선지능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진단하는 것은 어렵고, 그 진단 도구 또한 부재함. 경계선지능인이 보이는 다양한 양상으로 인하여 획일적 진단의 위험성이 있을 뿐 아니라, DSM-5에서도 지능 기준을 삭제했기 때문에 지능지수로만 경계선지능인 판단 기준으로 설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경계선지능인의 명확한 기준과 다양한 양상을 고려한 진단 도구 개발이 필요함. 특히 선별검사 도구는 경계선지능인의 특징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지능(IQ) 이외에 대상자의 행동, 대인관계, 언어 및 의사소통, 학업 성취와 같이 행동 및 심리·정서 등을 포함하여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면적 체크리스트 형태가 유용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송사리 등(2023)의 연구에서는 선별검사(학교) → 표준화된 지능검사(병원) → 면담(병원 또는 임상심리사 등) → 최종 진단 순의 선별 과정을 제안함

- **초기 선별 및 평가** :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전수 검사를 통해 경계선지능인의 초기 진단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심층 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 유아기 아동들은 지능검사를 진행하기보다는 보호자 체크리스트를 통해 진단 받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간이 선별검사를 고려해볼 수 있음
- **정기적 재평가** : 경계선지능인은 성장 과정에서 능력과 요구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재평가를 통해 개인의 발달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지원을 조정해야 함
- **통합적 진단체계** : 심리학적 평가, 교육 평가, 사회적 기술 평가 등을 포함하는 통합적 진단체계를 구축하고 경계선지능인의 다면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고려함

□ 경계선지능인 맞춤형 진단을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및 보급

○ 부모, 교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는 경계선지능인의 특징에 대해 빠르게 인식(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간이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배포할 필요가 있음

○ 본 면접조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경계선지능인이라는 것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간이형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필요함

○ 체크리스트 개발을 위해서는 인지 기능, 사회적 상호작용, 일상생활 기능, 정서적 안정성 등이 주요 항목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인지 기능** : 문제 해결 능력 정도, 기억력 정도, 집중력 정도 등
- **사회적 상호작용** : 의사소통 능력, 사회적 관계 형성, 감정 인식 등
- **일상생활 기능** : 자기인식, 자기관리능력, 조직 및 계획 능력, 자기주도적 학습 등
- **정서적 안정성** : 불안 및 스트레스 반응, 자존감, 우울감 등

2-2.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차원의 지원을 위한 거점 센터 및 지원체계 마련

○ 본 연구의 면접조사 결과,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센터 또는 기관 설립에 대한 욕구가 나타남. 거점 역할을 하는 전담기관의 설립은 필요함. 거점 지원센터는 사업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데이터 구축, 평가, 서비스 제공 인력 관리(자격과정, 보수교육 등), 인식 개선 사업 등을 주력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하나의 거점 센터가 모든 사업을 할 수도, 모든 대상자와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평생교육, 사회복지, 공공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존의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하여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지역자원 연계 방안** : 도농복합 제주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대상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기반의 서비스 연계, 이동 서비스 제공, 디지털 및 원격 서비스 확충 등이 고려되어야 함
  - **지역 기반 서비스 연계** : 현재 구축된 지역의 평생교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기관, 공공기관 등의 인프라와 인적 자원을 활용한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상담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직업 훈련 등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면 도심에서 먼 지역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까지 보다 쉽게 서비스 접근이 가능하도록 고려될 것임
  - **이동 서비스 제공** :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는 이동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 있음. 예로, 이동 상담소, 이동 학습 지원 차량 등을 운영하여 경계선지능인이 사는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및 원격 서비스 강화** : 지역 기반 서비스 연계에 대해 원격 상담 및 교육서비스, 지역 간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교통지원 및 접근성 개선 등의 서비스를 확충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 있음
- **학교현장 연계 방안** : 학교현장에서도 학습에 중점을 둔 교사 체계 이외에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등의 향상을 위한 상담교사, WEE센터 관련 전문가, 교육복지사 등

의 지원체계 활용 또는 연계하여 학교 현장 및 학교 밖 현장으로 찾아가는 형태의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함. 특히, 학교의 기초학력지원(학습연구년 교사 학교방문, 기초학력센터 등 전문적 지원) 및 학교 밖 외부 전문기관 연계 지원 등 접근성이 높은 협력체계 구축 방안이 고려돼야 할 것임

- **현장방문 연계 방안**: 경계선지능인(또는 의심자) 자녀에게 관심이 있는 부모를 둔 가정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먼저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 지원을 연결해야 하는 가정(자녀 및 가족 구성원)에 대해 이동 서비스 연계로 찾아가는 현장방문 형태의 전달체계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생애주기별 경계선지능인의 욕구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필요

○ 본 연구는 기초연구 차원에서 대상자와 관계자 중심의 면접조사로 진행하였으나, 조사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형별 인원, 면접 시간 등 다소 부족한 한계가 있음

○ 생애주기별 조사대상을 표집하고 정책 욕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양적 실태조사를 통해 관계 형성의 어려움, 일상생활의 어려움, 교우 관계의 어려움 등의 하위주제에 대한 분석과 치료 서비스와 프로그램 욕구 등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요구됨.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제주지역의 생애주기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 설정, 추진과제를 마련한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

2-3.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 경계선지능인 특성을 고려한 일관된 지원으로 사회 통합 및 자립 가능성 향상

○ 생애주기별 아동·청소년, 청년 관련 지역 다수의 기관에서는 학업 성취도 향상, 대인관계 증진, 의사소통 프로그램, 문화·여가 프로그램 등을 이미 진행하고 있고, 일부 기관에서는 느린 학습자 관련 프로그램을 크고 작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음. 그러나 경계선지능인들은 이해와 활동에 소요되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아동·청소년 및 청년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진행보다는 경계선지능인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진행하는 것이 요구됨

○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할 경우에는 경계선지능인을 올바르게 이해한 전문적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즉, 일관된 지원을 통해 예측 가능한 문제 해결 및 사회통합과 자립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함. 이를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일관된 서비스 지원** : 생애주기에 따른 일관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경계선지능인은 각 단계에서 적응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 그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소외를 경험하게 될 수 있음. 예를 들면 아동기에는 교육적 지원이 부족하고, 성인기에는 고용 지원이 미흡하다고 가정할 때 이들의 자립 가능성은 크게 낮아질 것임
- **예측 가능한 문제 해결** : 생애주기 전 단계에서 지속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된다면 예상되는 문제를 미리 해결할 수 있음. 이로 인해 각 단계에서의 자연스러운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음. 예를 들면 청소년기부터 직업 탐색과 훈련이 이루어진다면 성인기에는 더 쉽게 일자리를 찾고 유지할 수 있을 것임
- **사회 통합과 자립 가능성 향상** :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은 경계선지능인이 학교, 직장, 지역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경제적·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음. 이는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통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경계선지능인 개별 맞춤형 지속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본 연구의 면접조사 결과, 모든 생애주기에 공통적인 욕구와 함께 유아기 및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성인 초기 및 후기) 등 각 발달단계에 따라 뚜렷하게 나타나는 욕구가 존재함. 유아기 및 아동기에는 공교육 입학 전 두려움(학교 적응과 정보 및 지지자원 부재), 학습과 관계의 어려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청소년기에는 사춘기라는 시기와 함께 부모의 소진이 맞물려 당사자와 부모의 기대와 욕구의 차이, 성인기가 되면 다양한 경험 부족과 네트워크 자원의 한계 등으로 이어지게 됨

○ 따라서 경계선지능인의 개별적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개별화된 계획(Individualized Support Plan, ISP)을 수립하고, 생애주기별로 평가와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임

- **유아기 및 아동기**
  - **발달 지원** : 유아기는 발달의 중요한 시기임. 초기 개입을 통해 인지적, 언어적, 사회적 발달을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조기 진단과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령기 이후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큼
  - **교육 지원** : 아동기에는 경계선지능인에게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 학습 속도가 느리거나 이해도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화 교육계획을 통해 이들의 학습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임
- **청소년기**
  - **자아 정체성 형성 지원** :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임. 이 시기에 맞춤형 심리적 지원과 상담이 필요하며, 경계선지능인이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임
  - **직업 탐색과 진로 교육 지원** : 이 시기에 직업 탐색과 진로 교육은 매우 중요함.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맞춤형 직업 교육과 실습 기회를 제공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성인기**
  - **직업 및 사회적 자립 지원** : 성인기가 되면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가 중요한 과제가 됨.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직업 훈련과 고용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사회적 관계 및 생활 관리 지원** : 성인기에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이들에게는 대인관계 기술 교육과 생활 관리 지원이 필요하며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주거 지원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함

2-4.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홍보 강화

□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법적 보호 강화

○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정보 제공과 이들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함. 이는 이들이 생애주기 전 단계에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음

○ 따라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단일화된 방식이 아닌 일반 도민 대상 인식 개선 방식, 부모, 교사, 지역의 경계선지능인의 이용(접촉) 가능성이 있는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및 유관기관 등으로 유형화하여 실효성 있는 인식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역사회 인식 개선 방안** : 경계선지능인의 일상과 생활공간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하여 인식 개선과 관계망을 지원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학교현장 인식 개선 방안** : 경계선지능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존재하는 또래와 교사 등의 관계망과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사(및 예비교사) 대상 정례화 및 비정례화 교육과정 또는 임용 전 교육과정 운영을 할 때 경계선지능인 이해 교육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또한 2024년도부터 시작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계선지능인 지원제도에 대한 내용과 선별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방안 역시 고려되어야 함
- **부모 및 가족 지원 방안** : 생애주기별 경계선지능인의 삶을 고려할 때 당사자 이외에도 부모와 가족들의 역량 강화 등 부모와 가족 지원이 필수적임. 가족 지원을 위해 관련 전문가와의 파트너십은 물론 경계선지능인의 돌봄자가 될 가능성이 큰 부모와 형제자매에 대한 지원은 중요하므로 자조모임이나 교육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 현재 경계선지능인 가족 지원은 초기 단계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미국의 SLN(Sibling Leadership Network) 사례처럼 온라인 자조모임 지원(이재경 외, 2023) 형태의 운영방안도 현실적으로 유용할 것임

□ 경계선지능인 관련 통합적인 정보 시스템 구축

○ 경계선지능인(또는 의심자) 자녀를 둔 부모와 관심이 있는 도민들이 관련 정보와 자원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통합 정보망 창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 정보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한 사례로, 현재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는 영유아기의 발달 특성, 아동기의 학습 성취도 관련 정보, 청소년 후기 및 성인 초기의 진로 및 직업교육, 성인기 이후 취업 및 평생교육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보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함. 즉, 생애주기를 고려한 다양한 기능을 결합하여 한 번에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 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제주지역 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다른 형태의 기관이라도) 등의 서비스 지원체계는 생애 전반에 걸쳐 연속적이고 일관된 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영돼야 할 것임. 따라서 교육, 고용, 복지, 건강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통합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 함

참고문헌

강옥려(2016). 경계선급 지능 아동의 교육: 과제와 해결 방안. 한국초등교육, 27(1), 361-378.

국립특수교육원(2019). 장애인 평생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_____(2021). 2021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 통계자료집.

_____(2022). 제2차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기초 연구.

국회의원 조정식·EBS교육방송·교육부·경기도교육청(2014),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정책 토론회: 경계선 지능 학생실태 및 대안 모색」, 자료집, 국회의원 조정식 의원실.

김동일, 안예지, 이연재, 최서현, 박지현, 한은혜, 황지은, 최가람(2021). 서울시 경계선지능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용역. 서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김동일, 이연재, 한은혜, 안예지(2022). 지능과 학업성취 준거에 의한 느린 학습자 집단 분류 탐색: 지적장애, 학습장애, 경계선 지능을 중심으로. 학습장애연구, 19(1), 25-53.

김상균, 김연옥, 오정수, 노혜련, 김기환(1997). 학생비행 예방 및 선도를 위한 지역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김주영(2018). 학령기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의 언어 및 읽기 능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 139-157.

김춘경(1998). 학습부적응의 원인과 예방책 및 놀이치료에 관한 심리학적 고찰. 놀이치료연구, 2(1), 13-31.

박광옥·이기연·이복실·안예지(2022), 「경계선지능 청년의 정책 소외 실태 및 정책 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박진우(2023), 『경계선지능인의 현황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제2109호.

박찬선, 장세희(2018). 경계선지능을 가진 아이들, 이담북스.

박현숙(2018).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 선별 체크리스트: 타당화와 하위특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변관석·신진숙(2017), 「경계선 지능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19(1), 79~109.

송사리·이창현·김지연(2023),「강원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강원여성가족연구원.

엄경남, 이재경, 문정희(2019). 느린 학습자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학습권 보호 및 자립을 중심으로. 서울: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유경, 정은희, 김락형(2007). 이야기 활동을 통해 살펴본 학령기 경계선 지능 언어 발달장애 아동의 쓰기 특성.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8(3), 231-247.

이금진(2011). 학령기 경계선 지능 아동의 사회 성숙도와 자존감 향상을 위한 멘토링 효과성 분석-대학생 멘토와 경계선 아동의 상호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4, 137-165.

이새별, 강옥려(2020). 경계선급 지능 아동의 작업기억 특성 분석. 학습장애연구, 17(2), 1-27.

이소래(2003). 학교현장에서 멘토링의 실제. 학생 정신건강을 위한 학교사회사업의 개입전략과 실천전략,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이재정, 엄경남, 박영주, 신영민, 오경옥, 송하웅(2023).「서울시 경계선지능인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형개발 연구」,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멘토링의 실천전략.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2003 춘계학술대회 워크숍.

전미진(2003). 학교부적응학생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민경(2021),「시설보호아동청소년의 경계선지능에 대한 이해와 시사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희정, 이재연(2008).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특성. 특수교육학연구, 42(4), 43-66.

주은미, 최승숙(2021). 경계선 지적 기능 청년의 진로설계 및 직업준비 경험에 대한 당사자와 관련인의 인식. 특수교육학연구, 56(1), 1-30.

제주특별도지사(2022).「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

최승숙·한경근·김수완·임은주(2023),「경기도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허민숙(2024),「'경계선지능인' 한부모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제2178호.

Alloway, T. P. (2010). Working memory and executive function profiles of individuals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54(5), 448-456.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th).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Anderson, A. K.(2005), "Affective influences on the attentional dynamics supporting awarenes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154, pp.258~281.

Beaumont, P. B.(1996), "Article title," In Dale Belman, et al.(eds.), *Book Title*, Madison : IRRA, pp.283~307.

Bernhardt, A., Morris, M. Handcock, M. S. and M. A. Scott(1999), "Article Title," *Journal Title* 17 (4), pp.65~90.

Bonifacci, P. & Snowling. M., (2008). Speed of processing and reading disability : A cross-linguistic investigation of dyslexia and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Cognition. 107(3), 999-1017.

Chauhan, S. (2011). Slow learners: their psychology and educational programmes. International Journal of Multidisciplinary Reserch, 1(8), 279-289.

Deb, S. T. & Bright, M. S., (2001). Mental disorder in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Prevalence of functional psychiatric illness among a community-based population aged between 16~64 year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45, 495-505.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Y: Norton.

Gabriele, M., Mara, M., & Pietro, P. (1998). Adolescent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Psychopathological risk. Adolescence, 33(130), 415-424.

Hartman, E., Houwen, S., Scherder, E., & Visscher, C. (2010).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or performance and executive functioning in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54(5), 468-477.

Kim, SOO HOO(1996), *Book Title*, Place: Publisher, pp.283~307.

Nambiar, P., Jangam, K., Roopesh, B. N., & Bhaskar, A. (2020). Peer victimization and its relationship to self-esteem in children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y and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in regular and special schools: An exploratory study in urban bengaluru.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24(4), 474-488

Peltopuro, M., Abonen, T., Kaartinen, J., Seppala, H., & Vesa Narhi, V. (2014).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52(6), 419-443.

Reddy, G. L., Ramar, R., & Kusuma, R. A. (원서출판 2006).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청소년을 위한 느린 학습자의 심리와 교육(2013), (박현숙, 역). 서울: 학지사.

Ruiz, Javier Astudillo(2002), "Paper title," Name of the Organization, *Working Papers* No.83.

Shaw, S. R (2008). An educational programming framework for a subset of students with diverse learning needs: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Intervention in school and clinic, 43(5), 291-299.

Soenen S., Van Berckelaer-Onnes, I. A., & Scholte, E. M. (2016). A comparison of support for two groups of young adults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y. British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y 44, 146–158.

Wieland, J. & Zitman, F. G. (2016). It is time to bring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back into the main fold of classification systems. BJPsych Bulletin, 40 204-206.

교육부, https://www.moe.go.kr/main.do?s=moe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서울특별시경계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https://sbifc.org

정부 24 장애인 등록 신청, https://www.gov.kr/mw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4학년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

Abstract

A Basic Research on Lifelong Education Support Measures for Individuals with Borderline Intelligence in Jeju

Mi-young Ko, Tae-joo Son, Young-lim Ko, Yoo-kyeong Ko,
Ji-yun Lee, Kwon-oh Kang, In-kyoung Jung

This study, as a foundational research, reviewed previous data related to individuals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and conducted interviews with key stakeholders such as individuals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their caregivers, teachers, and field experts, who constitute their social support system. Based on these findings, policy support measures were explored.

The interviews aime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and policy demands of individuals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A total of 11 interview sessions were conducted in June 2024 with individuals, caregivers, field experts, and teachers.

Based on the results, the support measures for lifelong education for individuals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are as follows:

First, to establish a screening and diagnostic system for tailored support for individuals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it is proposed to 1) develop diagnostic tools that consider the diverse aspects of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and 2) create and distribute a checklist for personalized diagnosis.

Second, to build a support system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Jeju, it is proposed to 1) establish a hub center and a support system for lifelong education tailored to individuals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and 2) conduct a survey to identify policy needs across the life cycle of individuals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Third, for the development of support policies and programs according to the life cycle, it is proposed to 1) provide consistent support that considers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to

enhance social integration and independence, and 2) develop and implement continuous, personalized support programs tailored to individuals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Fourth, to improve social awareness and strengthen advocacy for individuals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it is proposed to 1) raise societal awareness and strengthen legal protection, and 2) build an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related to individuals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Keyword : individuals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Lifelong education, Basic research, Life cycle, Screening and diagnosis

연구보고서
JILES-2024-01

제주지역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방안 기초연구

발 행 인 진 희 종
발 행 일 2024년 11월 30일
발 행 처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63171 제주시 서사로43(삼도이동)
전화: (064) 744-9852 팩스: (064) 726-9961
홈페이지: www.jiles.or.kr
인 쇄 처 일신옵셋인쇄사
ISBN 979-11-93547-20-5 93330

※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인용은 가능하나 내용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